

尙武 전통의 재해석과 忠義之鄉이라는 정체성*

- 조선시대 평안도 지역 읍지 풍속 기술을 중심으로 -

김지영**

〈차 례〉

1. 머리말
2. 조선전기 평안도 각 군현의 풍속 관찰
3. 17세기~18세기 평안도 지역 읍지의 예교인식과 풍속 서술의 기준
4. 18~19세기 예교 문명의 전유와 尙武 전통의 재해석
5. 忠義之鄉이라는 정체성과 지역 역사 해석의 변화
6. 맺음말

[국문초록]

15~16세기 지리지에서는 평안도 일부 군현의 풍속을 기록했는데, 활쓰기나 말타기를 잘 하며 날래고 역센 상무적 기풍을 강조했다. 경상도 및 전라도에 이미 출현했던 문화, 서로 다투지 않으며 돌보고 사양하는 문화는 보이지 않았다. 조선에서는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살 줄 아는 삶의 태도를 문명의 지표로 여기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 여러 지역의 풍속을 평가했다. 평안도가 본래의 기질적 특성에만 머물러 있다면, 중앙과의 거리와 관계없이 평안도는 주변이고 변방일 수 밖에 없었다. 외부로부터의 평가와 내부의 실천 의지 및 자기 평가, 조선이 처한 역사적 상황들이 뒤얽히며 이후 평안도에서도 경상도·전라도와 마찬가지로 지역 풍속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분투가 있게 되었다. 16~18세기 동안 관서의 중심지인 평양과 그 주변 지역 뿐 아니라 국경지역에 가까운 강계, 초산, 성천 등 평안도 상당수 지역까지도 조선이 강조한 예교 문명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전유하며 문화적 변방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읍지에 기재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많은 고을들에서는 武를 중시하는 기풍을 함께 기록했지만, 상무 기풍을 더 이상 비문명의 표지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형성되었다. 임진왜란과 정묘·병자호란 당시 지역인들의 지역 및 국가공동체에 대한 자랑스러운 기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2A01039486)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객원연구원

여의 기억들은 상무 전통을 자랑스럽게 재해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용천이나 선천, 의주, 정주 등 평안도 고을들은 읍지에서 임진왜란, 정묘·병자호란 시기 지역인들의 충의 행적을 강조하며 ‘충의지향’이라는 자부심을 드러냈며 고을의 정체성으로 삼았다. 무예를 숭상하던 변방의 고을들은, 무예를 질하는 자신들의 장점을 활용해서 타인을 돌보고 지킨 역사를 발굴해 기록하며 변방의식으로부터 벗어났다. 동시에 상무 기풍의 연원으로 거론되던 지역의 옛 역사도 긍정적으로 재인식했다.

[주제어] 풍속, 지리지, 평안도, 상무 전통, 신유학, 忠義之鄉이라는 정체성

1. 머리말

모든 사람들이 타고난 본성과 길러진 기질에 따라 저마다의 품성이 있듯이 한 지역이나 나라도 오랜 교화에 의해 일정한 특성의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고 보았는데, 이것이 바로 풍속이다. 정치와 풍속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민간 풍속을 관찰해 정치를 반성하고, 관찰한 풍속 내용을 기반으로 삼아 향후 정치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때문에 국초부터 조선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방 각 지역의 문화를 관찰하고 이를 기록했다. 일부 군현의 풍속을 기록하는 것에서 출발해, 점차 대부분의 군현 읍지에 <풍속> 항목이 포함되었다. 각 시기에 편찬된 읍지 풍속 항목에는 시기별로 각기 다른 풍속 내용을 기록했는데, 적어도 18세기까지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의 읍지 <풍속> 항목은 조선이 견지한 ‘문명화’의 기준을 각 지역이 내면화하며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삼은 결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¹⁾

이 글에서는 경상도, 전라도 지역과 상당히 다른 풍속을 지녔다고 평가되어 왔던 평안도 지역의 풍속 기술의 변화를 살피고자 한다. 조선시대 평안도 풍속은 상대적으로 일찍부터 주목받았는데, 서북지역 차별론과 연계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서북지역 차별론은 흥경래 난의 원인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되었다.²⁾ 이러한 관점은 인조대에서 흥경래 난까지 평안도 출신에 대한

1) 김지영, 『예교의 가늠자 - 조선시대 경상도 지역 지리지 ‘풍속’조의 검토』, 『규장각』 52, 2018; 『예교의 확산과 풍속 서술의 변화 - 조선시대 전라도 지역 읍지 풍속 기술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100, 2022.

차별 실태와 정치적 소외의 실상과 도민의 극복 노력을 다룬 연구를 통해 더욱 확고해졌다.³⁾

차별·소외로 점철된 조선의 변방으로 평안도를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근대화 과정에서 학문·교육·문화·경제 분야에서 평안도인들의 적극적 역할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고 서북 지역의 성장, 서북인들의 정체성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려는 연구들도 제출되었다. 서북 지역에 대한 국가 또는 타 지역민들의 차별의식을 시기별로 나누어 각각의 계기성을 살피고자 한 연구에서는 청과의 긴장관계가 완화되고 대청외교와 무역의 중심지로서 번성하게 된 영조대 중반 이후 서북지역의 인구가 급증하고 문교가 활성화되는 등 선진 지역으로 발전이 본격화되었고, 군현 단위로 지역 역사와 전통의 가치를 재음미하는 경향도 대두되었다고 설명했다.⁴⁾ 서북 지역 전체가 단일한 정체성을 가졌다고 보는 연구 관점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關西辨誣訴 사건을 촉발시킨 여필회에 대한 대응이 지역 내에서 서로 달랐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 서로 다른 대응과 역사의식의 분화를 들어 서북 지역, 평안도 전체가 하나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관점을 비판하였다.⁵⁾

평안도 지역 정체성의 실상, 정치·문화적인 변방의식에서 벗어나는 경로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 글에서는 특히 평안도 지역인들이 차별과 배제의 논리를 제공했던 중앙의 문명론을 전유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하며 변방의식에 도전하고 극복해나가는 경로에 주목하고자 한다. 평안도 풍속은 역세고 사납다는 말로 대표된다. 경상도의 경우에도 1425년에는 평안도와 마찬가지로 강하고 사나우며 무예를 숭상하는 군현이 많았는데, 18세기에는 거의 모든 고을이 순후하고 검소하며 문을 숭상하는 지역으로 바뀌었다.⁶⁾

2) 정석중, 『洪景來亂의 성격』, 『한국사연구』 7, 1972.

3) 오수창, 『朝鮮後期 平安道民에 대한 人事政策과 道民의 정치적 동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朝鮮後期 平安道 社會發展 研究』, 일조각, 2002; Sun Joo Kim, *Marginality and Subversion in Korea—The Hong Kyongnae Rebellion of 1812*, Washingt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7; Sun Joo Kim, *Voice from The North: Resurrecting Regional Identity through the Life and Work of Yi Sihang(1672~1736)*,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3.

4) 하명준, 『朝鮮後期~近代改革期 平安道の 政治·文物 伸張 研究』,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6.

5) 이은주, 『평양인의 자기 인식』, 『한국문화』 94, 2021.

평안도의 경우에도 상당수의 고을에 변화가 있지만, 그 변화의 방향은 상무적인 기풍을 드러내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었던 경상도와는 달랐다. 물론 ‘業武 대신 業文하는’ 방식으로 상무적 정체성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다. 또 ‘武健을 통해 귀인이 되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평안도 토풍에 대한 차별의식을 인정하면서 상무적 정체성을 소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선행 연구에서 지적했던, 경화된 대청관계 속에서 평안도인을 무변으로 진출시켜야 할 필요가 증대했던 상황에서 펼쳤던 국가 시책은 이러한 방식으로 평안도의 상무 기풍을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평안도 읍지에는 이 두 가지 방식과 달리 상무적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문명인의 필요충분조건으로 승화시키는 방식까지도 보인다는 것이다. 상무적 기풍을 평가하고 다루는 방식은 한결같지 않고 다양한 변화를 보인다. 평안도 지역 읍지의 〈풍속〉 기술을 살피고 그 변화의 실상을 정리하는 것이 이 글의 첫 번째 과제이다.

두 번째로 주목하는 것은 평안도 지역 풍속 기록에 영향을 주고 있는 당대의 평가 기준과 지역인의 상호작용이다. 읍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풍속 교정의 책임을 맡은 지방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평가 기준과 지방지 편찬에 참여한 지역인의 평가 기준이다. 둘은 대부분의 경우에 잘 구분되지 않지만, 지역 지식인들이 편찬에 적극 참여했던 龍川이나 宣川의 경우처럼 지역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풍부하게 담긴 경우도 있다. 읍지는 대개 외부에서 지역을 바라보는 인식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만, 지역인도 읍지에 수록된 지역 역사를 통해 자기 지역에 대한 감각을 객관화했고, 이는 다시 지역인의 정체성과 후대에 편찬된 읍지 기술에 영향을 주었다. 즉 장기간에 걸친 읍지 서술 내용의 변화는 지역의 인정투쟁 과정과 그 결과로서 지역 정체성의 변천상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17~19세기 동안 평안도 지역 풍속 기술의 변화 이면에 놓인 지역 인식과 평가 기준 및 변화상을 추적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6) 김지영, 앞의 글, 2018, 23~31쪽.

2. 조선전기 평안도 각 군현의 풍속 관찰

1425년부터 도내 66개 고을의 풍속을 기록했던 경상도와 달리, 평안도 지역 풍속 기록은 『세종실록지리지』(이하 <실록지리지>)에서 처음 등장한다. <실록지리지>에서는 서북 지역에서도 압록강에 근접한 국경 지역의 두 고을인 평안도 위원과 의주 등 2개 고을의 풍속만을 소개했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경우 각각 여섯 고을의 풍속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서도 적은 수이다.⁷⁾ 위원은 ‘활쏘기와 사냥을 숭상한다’고 하였고, 의주 역시 ‘사냥의 이익을 좋아한다고 하였다.’⁸⁾ 같은 관방 지역인 함경도의 경우에는 4개 고을의 풍속이 실렸다. 함경도의 가장 첫머리에서 함흥부의 풍속을 ‘부지런하고 검소하며, 역세고 사납다’라고 한 후 도 전체가 이와 같다고 기술했다. 경흥은 ‘활쏘기와 말타기를 숭상하며 매매를 잘한다’고 하였고, 부령은 ‘무를 숭상한다’, 회령은 ‘검소하고 강하고 용맹함을 숭상한다’고 하여 기본적으로 함흥과 비슷하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⁹⁾

평안도와 함께 양서 지역으로 분류되었던 황해도의 경우에는 평안도, 함경도 뿐 아니라 남쪽의 여러 도보다도 많은 15개 고을의 풍속을 기술했다.¹⁰⁾ 다만 기술 내용은 소금과 제철, 누에치기와 뽕나무 기르기, 상업 등으로 生利를 추구한다는 생업에 관한 언술로 이루어져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이하 <여지승람>)에서 경상도 44개, 전라도 24개 고을 풍속을 기록했던 것과 달리 평안도 지역은 위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42개 고을 중 네 개 고을의 풍속만을 기술했다. 우선 <실록지리지> 단계에 있던 위원 풍속은 사라졌다.¹¹⁾ 의주는 사냥의 이익을 좋아하는 것에서

7) 김지영, 앞의 글, 2018, 10~11쪽; 앞의 글, 2022, 166~167쪽.

8) 『세종실록』 권154, 地理志, 平安道, 江界都護府, 渭原郡. “俗尙射獵”; 『세종실록』 154권, 地理志, 平安道, 義州牧. “俗好山獵之利”.

9) 1425년 경상도 지역의 진주, 성주, 김해, 영해, 창원, 밀양, 양산, 울산, 김산, 고령, 언양, 함창, 거창, 장기, 진성, 기천, 안음, 삼가, 의령 등 19개 고을이 역세고 강함 또는 무를 숭상한다고 기록했다.(김지영, 2018, 앞의 글, 6~10쪽.)

10) 황해도 강음, 곡산, 배편, 수안, 신은, 안악, 우봉, 은율, 장련, 장연, 제령, 토산, 평산, 풍천, 황주 등 15개 고을이다. 황해도 풍속의 변화상은 별개로 다를 계획이다.

11) 위원군은 1443년(세종25)에 강계와 초산[이산] 땅을 나누어 처음 설치되었으나, 1460년(세조6)에

〈표 1〉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평안도 풍속 기술
 (는 <여지승람>에서 풍속 기술이 추가된 경우)

| 연번 | 도명 | 군현명 | 풍속기술 |
|----|-----|-----|------------------------------------------------------------------------------------------------------------------------------------------------------------------------------------------------------------------------------------------------------------------------------------------------------------------------------------------------------------------------------------------------------------------------------------------------------------------------------------------------------------------------------------------------------------------------------------------------------------------------------------------------------------------------------------------------------------------------------------------------------------------------------------------------------------------------------------------------------------------------------------------------------------------------------------------------------------------------------------------------------------------------------------------------------------------------------------------------------------------------------------------------------------------------------------------------------------------------------------------------------------------------------------|
| 1 | 평안도 | 가산 | 質을 숭상하고 華를 힘쓰지 않다: 群籍에 나타나 있다. |
| 2 | 평안도 | 구성 | 활쏘기와 말타기를 힘쓴다. 간소하고 質朴한 것을 숭상한다: 모두 群籍에 있다. |
| 3 | 평안도 | 의주 | 風氣가 굳세어서 활쏘기와 말타기를 잘하고 사냥(畋獵)을 좋아한다: 地志. |
| 4 | 평안도 | 평양 | ① 팔조의 가르침: 반고의 『후한서』에 이르기를, “기자가 그 백성들에게 예의와 농사짓기·누에치기·베짜기를 가르치고 백성을 위하여 禁法 8조를 만들었다. 사람을 죽인 자는 死刑으로 갖고, 사람을 상한 자는 곡식으로 갖고, 도적질한 자는 그 집의 노비로 적몰하고, 벌금으로 대신하고자 하면 1인당 50만 전을 낸다. 비록 면죄되어 평민이 되나 풍속이 오히려 부끄럽게 여겨 혼인할 데가 없게 된다.” 하였다. ② 부인이 정조를 지켜 음란하지 않다. 천성이 유순하여 삼방(三方: 서·남·북)과 다르며 유순하고 삼기는 기풍이 있다: 모두 『한서』에 있다. ③ 도로 제어하기 쉽다: 천성이 부드럽고 순하여 도로 제어하기 쉽다. ④ 그릇은 俎豆를 쓴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기를 좋아하며, 후 冠을 쓰고 비단옷을 입으며 그릇은 조두를 쓰니, 이른바 중국에서 잃어버린 禮를 四夷에서 구한다는 것이다. ⑤ 음식을 절제한다: 그 풍속이 음식을 절제하고 집을 꾸미기를 좋아한다. 모두 『후한서』에 있다. ⑥ 三年喪을 입는다: 『北史』 高句麗傳에, “부모와 남편의 상은 다 삼년을 입고, 형제는 3개월을 입는다.” 하였고, 『五代史』에, “그 나라 사람이 문자를 알며 삼년상을 입는다.” 하였다. ⑦ 氣力을 숭상한다: 『南史』에 “나라 사람이 기력을 숭상하여 활과 화살, 칼과 창을 잘 쓰고 투구와 갑옷을 가지고 전투를 익히는데, 後魏 때 여러 나라 사신들의 시험에서 齊使가 1등을 했고 고려가 2등을 했다.” 하였다. ⑧ 빌려줌에 너그럽게 베풀어 준다: 『遼東誌』에, “성질이 유순하나 빌려줌에는 너그럽게 베풀어 주고 의복과 음식이 검소하여 옛날의 遺風이 있다.” 하였다. ⑨ 經術을 좋아하고 숭상한다: 『隋書』에, “경술을 좋아하고 숭상하며 文史를 사랑하고 즐겨 중국의 서화로 유행하는 자들이 왕래하며 길을 잇고 혹 죽을 때까지 돌아가지 않으니, 先哲의 유풍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있겠는가.” 하였다. ⑩ 귀신을 공경하고 淫祠가 많다: 『수서』에 있다. ⑪ 바둑과 投壘를 즐긴다: 『唐書』에, “풍속이 바둑과 투호와 蹴鞠을 즐긴다.” 하였다. ⑫ 산골짜기에 의지해 살며 풀로 지붕을 이는다: 『수서』에, “산골짜기에 의지하여 살며 풀로 지붕을 이는데, 왕궁과 관청과 절만은 기와로 이었다. 가난한 백성은 한겨울에 긴 구들을 만들어서 불을 지피 온기를 취한다.” 하였다. ⑬ 네거리 옆에 모두 서당을 지었다: 『수서』에, “사람들이 배우기를 즐겨 |

폐지되며 초산부[이산]에 이속되었다. 1463년(세조 9)에 다시 복구하여 진을 설치했는데, 관이는 압록강변 위수 북쪽으로 옮겼다. <여지승람>에 위원 풍속이 제외된 이유는 알 수 없다.

| | | |
|--|--|------------------------------------------------------------------------------------------------------------------------------------------------------------------------------------------------------------------------------------------------------------------------------------------------------------------------------------------------------------------------------------------------------------------------------------------------------------------------------------------------------------------------------------------------------------------------------|
| | | <p>하여 궁벽한 마을의 천한 집에서도 서로 삼가고 힘쓰며, 네거리 옆에 모두 서당을 지어놓고 결혼하지 않은 자제들이 한데 모여 경서를 의고 활쏘기를 연습한다.” 하였다.</p> <p>⑭ 사람들이 생업을 즐긴다: 李穡의 기문에 있다.</p> <p>⑮ 풍속이 사납고 교만하다: 權近의 기문에, “고씨 적부터 武強을 숭상하였고, 고려 때에 遼와 金과 국경을 접하여 점차 이적의 풍속에 몰들어 풍속이 사납고 교만하다. 이는 마치 岐와 豐의 땅을 주나라에서 씬에 仁厚한 교화를 일으키고, 진 나라에서 씬에 용감하고 사나운 기운을 가짐과 같다. 대개 백성의 본성이 온후하고 진중하며 질박하고 곧으므로 선함으로 인도하면 쉽게 좇아 감화되고 엄하게 몰면 또한 죽히 부강한 기업을 이룰 수 있다.” 하였다.</p> <p>⑯ 날래고 굳세다: 權근의 序에, “평양은 기자의 옛날 封地이다. 8조의 가르침으로 백성들이 예의를 알았으나 朱蒙氏 이래로 말타기와 활쏘기를 익혀 그 풍속이 마침내 변하여 비록 수나라와 당나라의 성대한 병력으로도 굴복시킬 수 없었으니, 그 날래고 굳센을 상상할 수 있다.” 하였다.</p> |
|--|--|------------------------------------------------------------------------------------------------------------------------------------------------------------------------------------------------------------------------------------------------------------------------------------------------------------------------------------------------------------------------------------------------------------------------------------------------------------------------------------------------------------------------------------------------------------------------------|

풍기에 따라 활쏘기와 말타기를 잘하고 사냥을 좋아하는 것으로 풍속 내용이 다소 변화했다. 기왕의 것이 지역의 기호에 대한 서술이라면, 그러한 기호가 ‘風氣’라는 지역의 지리적 특성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인 것이다.

추가된 고을은 <실록지리지>에서 의주목에 속했던 嘉山, 정주목에 속했다가 분리된 龜城과 평안도의 중심지인 平壤 등 3개 고을이다. 구성의 풍속은 의주와 비슷하게 활쏘기와 말타기를 힘쓰는 것이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간소하고 질박한 것을 숭상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¹²⁾ 가산 풍속도 질박함을 숭상하고 화려함에 힘쓰지 않는다고 했다.¹³⁾ 활쏘기와 사냥을 좋아한다는 외면적 관찰에 의한 풍속 기술에 그쳤던 이전과 달리, ‘질박함[質]’, ‘간소함[簡]’이라는 형용사로 지역인의 품성을 서술한 점이 주목된다.

평양은 <여지승람> 단계에서 풍속이 처음 기술되었는데, 위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모두 16가지의 풍속 내용을 풍부하게 기록했다. 앞부분에는 『후한서』, 『한서』, 『수서』, 『당서』 등 중국의 역사책을 인용하여 평양의 풍속을 기술했다. 평양에 누적된 오랜 역사가 지역의 기풍을 만드는데 영향을 주었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기자가 예의를 가르치고, 농사짓기, 누에치기, 베짜기 등을 가르치고 8조의 금법을 만들어 사람을 죽이거나 상하게 하지

12) 『新增東國輿地勝覽』 卷53, 平安道, 龜城都護府, “務射御, 尙簡質.”

13) 『新增東國輿地勝覽』 卷52, 平安道, 嘉山郡, “尙質不務華.”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도록 가르친 일로부터 시작된다.(①)¹⁴⁾ 천성이 유순하고 삼가는 기풍이 있다거나(②), 道로 제어하기 쉽다(③), 그릇은 조두를 쓰고(④), 음식을 절제하며(⑤), 삼년상을 입는다(⑥)는 등 기자의 가르침과 선정의 결과로 평양이 남겨진 좋은 풍속들을 열거하였다. 이렇게 좋은 풍속만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빌려줌에 너그럽게 하는 법이 없다(借與無寬貸)(⑧)’라거나 ‘귀신을 공경하고 음사가 많다(⑩)’는 풍속도 있고, ‘바둑과 투호를 즐긴다(⑪)’, ‘산골짜기에 살며 풀로 지붕을 인다(⑫)’, ‘네거리 옆에 모두 서당을 지어 결혼하지 않은 자제들이 경서를 외고 활쏘기를 연습한다(⑬)’고 하는 등 평양의 독특한 민속을 기술하기도 했다.

흥미로운 것은 權近의 기문을 인용하여 조선시대에 추가된 두 가지의 평가이다. 하나는 ‘풍속이 사납고 교만하다(俗悍而驕)(⑮)’는 것이다.¹⁵⁾ 이 부정적인 평가는 조선 건국 직후 평양윤 趙溫이 평양성을 수축하고 大同門樓를 세웠던 1394년(태조3) 무렵, 관료들 사이에 널리 공유되었던 평양에 대한 세간의 인식을 반영한다.¹⁶⁾ 권근은 이렇게 된 이유를 역사를 통해 설명했다. 기자의 옛 도움으로 아름다운 풍속을 가졌었는데, 위만 때부터 고구려에 이르는 동안 무예의 강함만을 숭상해 풍속이 크게 변화했다. 또 고려 때에 요나라 및 금나라, 원나라와 국경을 접하면서 그들의 풍속에 물들어 풍속이 사납고 교만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권근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두 차례 크게 변화하며 형성된 평양 풍속을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중국의 중원 땅, 岐와 豐 지역을 주나라에서 쓰자 인후한 가르침이 이루어졌고, 진나라 나라에서 쓰자 용감하고 사나운 기운을 가졌던 것을 예로 들었다. 똑같은 땅에서 완전히 상반되는 기풍을 지닌 두 나라가 나온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한 지역의 풍속은

14) 조선시대 평양의 기자 숭배에 대해서는 한형주, 『조선시대 역대 시조묘에 대한 의례적 고찰』, 『국학연구』 39, 2019; 김창수, 『조선후기 기자의 위상과 평양의 지역성』, 『서울학연구』 89, 2022 참조.

15) 『新增東國輿地勝覽』 卷51, 平安道, 平壤府, 風俗. “俗悍而驕. 權近記. 自高氏尙武強 逮高麗與遼金接 壤漸染胡俗 俗悍而驕. 是猶岐豐之地 周家用之以興仁厚之化 嬴秦用之以有勇悍之氣. 皆民性厚重 質直 以善導之 易於從化. 以猛驅之 亦足以成富強之業.”

16) 권근이 이 글을 쓴 시기는 1394년 9월이다. 『陽村先生文集』 卷12, 記類, 平壤城大同門樓記)

결국 땅 자체의 자연적 형세나 기운에서 영향을 받기 보다는 어떤 정치가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정치를 통한 오랜 가르침이 풍속을 바꾸기에, 좋은 정치와 제도로 이끌면 평양 풍속도 곧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또 권근은 국초 예제의 방향을 이끈 성리학자답게 평양 백성들에 대한 믿음도 피력했다.¹⁷⁾ 백성의 성품이 온후하고 진중하며 질박하고 끈기 때문에, 선함으로 인도하면 쉽게 교화되고, 맹렬하게 몰아붙이면 부강한 업적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풍속이 정치에 따라 달라지는 법이므로, 미래의 평양 풍속 역시 조선의 정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자신이 대동문루에 오른다면 백성들을 위해 기자가 흥범에서 말했던 皇極의 가르침을 강론하겠노라고도 했다.¹⁸⁾ 타고난 천성은 중화와 이적, 옛날과 지금이 다르지 않으니 노력하여 황극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지손들이吉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겠다는 것이다.¹⁹⁾ 이렇게 ‘사납고 교만하다’는 일견 부정적으로 보이는 평양 풍속 기술 이면에는 풍속을 바꾸는 정치에 대한 책무감과 평양 백성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담겨져 있었다.

〈여지승람〉에 기록된 또 하나의 평양 풍속은 ‘날래고 굳세다[驍勇雄強] (16)’²⁰⁾는 것이다. 역시 권근의 글을 인용했다.²⁰⁾ 권근은 기자조선 때와는 달라졌지만, 수나라와 당나라의 병력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고구려의 날래고 굳센 기풍 역시 긍정적으로 묘사하였다. 권근은 이어지는 글에서 평양부윤으로 부임하는 李原에게 용맹을 가다듬어 국경을 공고히 하고, 예의를 밝혀 다시 풍속을 아름답게 하라고 당부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실록지리지〉와 〈여지승람〉에서는 평안도의 일부 지역의 풍속을 기록했다. 청천강 북쪽의 변경지역 고을이나 오랜 동안 지

17) 권근의 성리학적 인간학, 윤리학, 경세론에 대해서는 강문식, 『여말선초 성리학의 수용과 그 성격』, 『역사비평』 122(2018년 봄호), 2018, 181~184쪽 참조.
 18) 조선시대 기자조선에 대한 강조가 갖는 공공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백민정, 『조선 지식인의 왕정론과 정치적 공공성: 기자조선 및 중화주의 문계와 관련하여』, 『동방학지』 164, 2013 참조.
 19) 『陽村先生文集』 卷12, 記類, 平壤城大同門樓記
 20) 『陽村先生文集』 卷19, 序類, 送平壤府尹李公原詩序

역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해왔던 평양 모두 활쏘기나 말타기를 잘하고 날래고 굳세다는 상무적 기풍이 강조되었다. 또 가산이나 구성, 평양 등에서 보듯 질박한 바탕도 관찰되었다. 다만 <여지승람> 단계에서 경상도 및 전라도에 이미 출현했던 예속, 서로 다투지 않으며 돌보고 사양하는 문화는 아직 평안도 지역에서 자취를 찾을 수 없고, 평양 풍속에서 볼 수 있듯 ‘사납고 교만하다’는 부정적 평가도 내려졌다. <여지승람>은 <실록지리지>와 달리 출간 배포되어 평양과 평안도를 바라보는 조선의 시각을 형성했다. 이제 이와 같은 <여지승람> 이후 평안도를 바라보는 외부인의 시선 속에서 평안도인들의 정체성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3. 17세기~18세기 평안도 지역 읍지의 예교인식과 풍속 서술의 기준

<표 2> 조선 후기 평안도 풍속 기술의 변화

(☐는 <실록지리지/여지승람> 단계 풍속 기술이 있는 경우)

| 군현명 | 연도 | 풍속 기술 |
|-----|------|----------------------------------------------------------------------------------------------------------------------------------------------------------------------------------------------------------------------------------------------------------------------------------------------|
| 강계 | 1759 | 민성이 순후하고 길을 갈 때 식량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 농사에 힘쓰고 활쏘기를 중시한다. 사람들이 그 본업을 즐긴다(民性淳厚行不齋糧力農尙弓人樂其業) |
| | 1832 | 사람이 하늘에서 받은 것이 어찌 다르겠는가. 혹 풍에 습되고 속에 화되어 성정이 혹 옮겨 변하니, 백리에도 풍이 다르고 천리에 속이 다른 것이 이것 때문이니 역시 풍교에 관계된 것이다. 민속은 박략하고 본디 궁마를 숭상한다. 대부분 산곡간에 살면서 초옥과 판자집이며 公會가 없다. 開市 교역을 하며 사사로이 서로 구하고 매매한다. 혹 채삼이나 種麻에 종사하기도 한다. 무격을 믿고 神祀를 좋아한다. 行旅들은 양식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
| | 1839 | 풍속이 서로 같지 않음이 백리라도 오히려 그러할진대 허물며 본읍은 지방이 천리가 떨어져 있음에다. 거주하는 백성이 드물고 마을이 희소하여 백성들이 안분하고 사업을 각자 지키고 있다. 시장에는 이리궁저러궁 따지는 일이 없고 각자 매매한다. 인삼 공납을 소임으로 삼는다. 물이 약하고 산이 강하여 여자는 유희고 남자는 질박하다. 혹 박아함을 잃더라도 본디 교묘하게 속이는 일이 적다. 자생하는 도리는 곡식을 천시하고 소금을 귀히 여기며 포는 천하게 면은 귀하게 여긴다. 여행할 때에 양식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
| 강동 | 1656 | 풍속 항목 없음/유우: 조호익(서토인들은 예전에는 배움을 알지 못하고 바람을 따라 어지럽게 모여들었는데 호익이 제능에 따라 가르치고 학규를 세워 보이고 깨우치니 17년만에 사하의 풍속이 있게 되었다. 만력 왜란 때 선조가 서쪽으로 피난할 |

| | | |
|----|------|---------------------------------------------------------------------------------------------------------------------------------------------------------------------------------------------|
| | | 때 소모관이 되어 성천으로 향해 문인들과 더불어 호소하여 500여인을 모집하였다. 사졸들과 더불어 고난을 함께하며 충의로써 격려하니 많이 얻을 수 있었다. 함경도로 들어가 가동청정의 병사를 공격하고 이어 양주에 이르렀는데 철중장군으로 승격하는 표창이 이르렀다. 안주목사, 성천부사를 거친 후 영천으로 귀향하여 즐겼다. 호는 芝山이다.) |
| | 1759 | 문교를 숭상하고 사어에 힘쓰고 농상에 근면하다[崇文教務射御勤農桑] |
| 강서 | 1759 | 농사와 길쌈에 힘쓰고 문무를 숭상한다[務農務織尙文尙武] |
| | 1829 | 황희의 시에 이르기를 은은하게 두른 산 속 작은 고을 하나 인가는 물에 접하고 땅은 뽕나무 키우기 적합하네/송시열의 글에 이르기를 온나라 선생으로부터 본조에 이르기까지 수천년 동안 은택은 끊기고 가르침은 느슨해져 말달리는 것과 칼을 시험하는 것을 일삼는다. 松亭 金湲 선생이 그 사이에 일어나 능히 경술로 이끌어 항할 바를 알게 했다. |
| 개천 | 1759 | 옛사람의 순박함을 숭상하고 사람들은 대부분 순후하다.[尙古朴 人多淳厚] |
| 곽산 | 1759 | 농사가 첫째요, 무가 둘째, 문이 셋째, 어업이 넷째, 상업이 다섯째이다.[一農二武 三文四漁五商] |
| 구성 | 1759 | 문교를 숭상한다. 활쏘기와 말타기에 힘쓴다. 간소하고 질박한 것을 숭상한다. |
| | 1911 | 풍속은 농업을 중시하고 예의를 숭상하며 유교를 높이고 문학을 사랑하며 충효를 숭상하고 남녀의 구별에 더욱 엄하나라. 종류이상 사족은 관혼상제를 우리나라 도암 이재 선생의 사례편람의걸을 준용하나라.(이하 관혼상제 풍습 서술)/(세시기 부록) |
| 덕천 | 1759 | 농업에 힘쓰고 재예를 닦는 일이 드물다. 순박하나 조잡하고 근심하여 검소하다.[惟務農桑 善修才藝 醇而嗻 戚而儉] |
| | 1770 | 농업에 힘쓰고 재예를 닦는 일이 드물다. 순박하나 조잡하고 근심하여 검소하다.[모두 승략] |
| 맹산 | 1759 | 농상에 힘쓰고 화려함에 힘쓰지 않는다.[務農桑不務華] |
| 박천 | 1759 | 문무를 업으로 하고 효제에 근심하다. 농상에 힘쓴다[業文武勤孝悌務農桑] |
| | 1899 | 사농을 귀히 여기고 공고를 천하게 여긴다. 인심이 순후하고 안토낙업한다. |
| 벽동 | 1759 | 문학이 드물고 무예가 많다. 본업에 힘쓴다[鮮文學多武藝力勤業] |
| | 1832 | 민의 성품이 질박하고 순후하다. 문학이 드물고 무예가 많다. 농상에 힘쓴다. |
| 삭주 | 1759 | 문무를 숭상하고 활쏘기와 말타기를 가르친다. 간략하고 질박함을 숭상하고 농상에 힘쓴다.崇文教武射御尙簡質勤農桑 |
| | 1800 | 농상에 힘쓰고 무예를 숭상한다. 날래고 강건하며 강하고 재빠르다(剛勁). |
| 삼등 | 1759 | 농상과 경직에 힘쓴다[力農桑務耕織] |
| 삼화 | 1759 | 질을 숭상하고 화려함에 힘쓰지 않는다[尙質不務華] |
| 상원 | 1759 | 농상을 숭상하고 화목을 그 다음으로 숭상한다. 의식은 목면에 불과하고 밥은 조밥에 불과하다.[崇尙農桑次尙和睦衣不過木綿食不過粟飯] |
| 선천 | 1759 | 문제가 있으면 시서를 읽고 힘이 있으면 활쏘기와 말타기를 익힌다[有文才則讀詩 |

| | | |
|----|------|-------------------------------------------------------------------------------------------------------------------------------------------------------------------------------------------------------------------------------------------------------------------------------------------------------------------------------------------------------------------------------------------------|
| | | 書有斂力則習弓馬] |
| 성천 | 1690 | 서로 부는 것을 颯이라 하고 서로 물들이는 것을 俗이라 한다. 본부는 물이 깊고 흙이 두터워 거주하는 백성의 천성이 순하고 힘써 밭갈고 양잠한다. 복식이 검소하니 동명왕의 유숙이 오히려 남은 것이다. |
| | 1872 | 산수가 모이고 풍기가 청숙하여 민속이 부드럽고 은화하여 사나운 기습이 없다. 선비들은 경사에 근실하고 농지는 밭갈이와 김째에 힘쓴다. 공인은 그 기예를 잡고 상인은 재화를 유통하여 양생한다. 윗사람을 친히 여기고 어른을 섬기며 관령에 복종하고 공법을 두려워하기에 이끌기 쉽다. 이는 필시 동명의 유숙이지만 기성 팔조 가르침이 사람에게 들어움이 깊은 것인가. |
| 숙천 | | 풍속 항목 없음 |
| 순안 | 1759 | 面に 書塾을 설치하여 자제에게 勸課한다.[面置書塾勸課子弟] |
| | 1899 | 바람이 불어 속세를 물들이니 인정이 그러한 것이다. 그 풍속이 음식을 절약하고 농상을 업으로 삼는다. |
| | 1759 | 옛적의 순순함이 남아있고 芬華함이 부족하다. 桑麻를 본업으로 삼고 문무에 오직 근실하다.[淳古有遺芬華不足桑麻本業文武唯勤] |
| 인주 | 1759 | 본주는 기도[평양]로부터 멀지않아 예의와 전잠을 처음부터 팔조의 가르침을 따랐다. 후한서에 천성이 유순하고 쉽게 이끌 수 있다고 하였고 오대사에는 풍속이 문자를 알고 삼년복을 입는다고 하였으니 이는 풍속이 바른 것이다. 南史에 이르기를 국인이 기운을 숭상하고 궁시와 장갑을 편하게 여긴다고 감주를 입고 전투를 익힌다고 하였으니 이는 풍속이 변한 것이다. 隋書에 이르기를 경술을 좋아하고 文史를 좋아한다고 하였다. 목은기에 이르기를 인사가 業을 좋아하니 이로써 보건대 옛사람의 유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本州去箕都不遠禮義田蠶始自八條之教後漢書天性柔順易以導御五代史俗知文字服喪三年此則風之正也南史國人尙氣力便弓矢予刀有鎧甲習戰鬪此則風之變也隋書好尙經術愛樂文史牧隱記人士樂業以今觀之古昔遺風猶有存焉] |
| | 1820 | 궁마를 업으로 삼고 기력을 숭상한다. 국조이래로 풍속이 화리를 숭상한다. 민풍은 검소하고 사습은 講誦을 위주로 하며 과감을 서로 바란다. |
| 양덕 | 1759 | 농상에 힘쓰고 검소함을 숭상한다. 문무를 업으로 삼고 교화를 따른다[務農桑而尙儉業文武而從化] |
| | 1872 | 박아순후하고 혹 문이거나 무를 하며 효열이 많다. 고현 趙啓生이 칭하기를 농업에 근실하고 검소함을 숭상한다고 하였다. |
| 영변 | 1759 | 품부받은 성품이 소박하고 간략하다. 남의 잘못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 한다.[賦性朴略恥言人過] |
| | 1832 | (서문) 서로 부는 것을 颯이라 하고 서로 물들이는 것을 俗이라 한다. 이 곳은 동방에 군장이 처음으로 생기고 남녘이 나뉘고 도가 통하여 처음으로 가르침이 시작된 곳이다. /품부받은 성품이 소박하고 간략하다. 남의 잘못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 한다.[賦性朴略恥言人過]/복식이 검소하고 옛날의 유휘가 있다.[服飾儉素有古遺風] |
| 영원 | 1759 | 농상에 힘쓴다. 활쏘기와 말타기를 근실하게 한다[務農桑勤射御] |
| | 1832 | 농상에 힘쓴다. 아주 질박하고 문식이 적다. |
| | 1846 | 농상에 힘쓴다. 귀신을 좋아한다. |

| | | |
|----|------|--------------------------------------------------------------------------------------------------------------------------------------------------------------------------------|
| 영유 | 1759 | 사는 독서를 좋아하고 무는 성실히 활쏘기를 연습한다. 농가에서는 苦服을 짓고 밭갈이에 힘쓴다[士好讀書武勤習射農家作苦服事田畝] |
| | 1899 | 원 효연기에 인사가 업을 좋아하고 복식이 검소하여 옛 사람의 유풍이 있다고 하였다. 공부기에 이르기를 선비는 독서를 좋아하고 업무자는 활쏘는 연습을 좋아하고 농가는 苦服을 짓고 밭갈이에 힘써 대흥을 만나지 않으면 백성이 유산하는 일이 드물다. |
| 용강 | 1759 | 인성이 유순하고 충후하다. 남녀가 근실하게 밭갈고 길쌈한다. 무를 숭상하여 업문보다 많다.[人性柔順忠厚男女勤於農桑尙武多於業文] |
| | 1872 | 토지가 척박하고 백성이 가난하다. 남녀가 근실하게 밭갈고 길쌈한다. 본래 이눌하고 질박하고 충후하다. 문이 적고 무를 숭상하였는데, 업문이 많다. |
| | 1899 | 바닷가 산으로 둘러싸여 토지가 척박하고 백성이 가난하다. 동쪽에는 땅이 험소하나 사람이 많고 서방에는 땅이 넓으나 사람이 적다. 남녀가 근실하게 밭갈고 길쌈하고 상관하고 어염으로 이익을 삼는다. 그 풍속이 強勁하고 질박하고 용맹하다. 과연 무를 숭상했는데 지금은 업문하는 자가 많고 무용이 오히려 뒤지게 되었다. |
| 용천 | 1759 | 밭갈이와 양잠에 근실하다. 인성이 유순하여 공부에 응하기를 순하게 한다. 민속이 순박하다.[勤於田蠶人性柔巽順於貢賦 民俗朴原] |
| | 1796 | 산이 적고 들이 많고 땅이 두텁고 물이 완만하다. 인성이 유순하고 민속이 박소하다. 가시는 꾸미지 않고 의복은 사치하지 않으며 문무를 업으로 삼고 농상에 근실하다. 지지에 이르기를 풍속이 박후하고 부화하게 꾸미지 않는다. |
| | 1872 | 산이 적고 들이 많고 땅이 두텁고 물이 완만하다. 인성이 유순하고 민속이 박소하다. 가시는 꾸미지 않고 의복은 사치하지 않으며 문무를 업으로 삼고 농상에 근실하다. |
| 운산 | 1759 | 농업을 가장 숭상하고 화목을 다음으로 숭상하고 학업을 그 다음으로 숭상한다.[先尙農業次尙和睦次崇文武] |
| 위원 | 1759 | 문식이 없고 질이 많다. 싸움을 좋아하지 않는다. 행려가 경계에 들어와도 식량을 내놓지 않는다.[無文多質不好鬪鬪行旅入境不出資糧] |
| 은산 | 1759 | 활쏘기와 독서를 근실하게 하고 농상에 힘쓴다[勤射讀務農桑] |
| | 1899 | 활쏘기와 독서를 근실하게 하고 농상에 힘쓴다. 오로지 柔儒를 숭상하고 사송을 즐기지 않는다. 효제를 도타이 하고 성세를 존모하나 시끄럽게 분잡하지 않다. 검소하지도 사치하지도 않는다. |
| 의주 | 1821 | 활쏘기를 잘하고 사냥을 좋아한다 - 여지지/백성의 성품이 柔巽[유순]하고 복식이 검소하다 - 요동지 |
| | 1849 | 활쏘기를 잘하고 사냥을 좋아한다 - 여지지/백성의 성품이 柔巽[유순]하고 복식이 검소하다 - 요동지/충의를 존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중히 여긴다[深重然諾] - 조가의 포상이 이 이유가 많다 |
| 이산 | 1759 | 백성의 성품이 질직하다. 농상에 힘쓰고 무예를 중시한다[民性質直務桑尙武藝] |
| 자산 | 1745 | 인현을 경계에서 접하였으나 풍속은 오히려 두텁고 질박하다/나라의 운세가 형통하고 편안하니 향약을 신명한다[邦運亨泰 鄉約申明]/선비는 경술을 수양하고 백성은 耕織을 업으로 한다. |

| | | |
|----|------|--------------------------------------------------------------------------------------------------------------------------------------------------------------------------------------------------------------------------------------------------------------------------------------------------------------------------------------------------------------------------|
| | 1759 | 인현을 경계에서 접하였으나 풍속은 오히려 두텁고 질박하다[境接仁賢俗猶龐質] |
| 정주 | 1759 | 경사를 좋아하고 농상에 근실하다[喜經史勤農桑] |
| | 1809 | [풍토] 풍속이 질박하고 바르다. 인심이 에스럽고 순박하다. 경사를 좋아한다. 농상에 근실하다. 혼상은 주자가례를 따른다. 바다에는 좋은 물고기기가 있고 들에는 곡식이 풍부하여 화인들이 칭찬 바 쌀밥과 물고기국이 집집마다 있어 공후의 즐거움이 있다고 한 것이 이 곳이 근사하다. 세속에 전하기를 경태초에 천사 예겸이 달천교 위에 앉아 부로를 초집하여 풍속을 물었는데 이로 인하여 말하기를 이 땅은 땅이 두텁고 물이 깊어 도타운 자질의 정직한 선비와 본업을 즐기려는 백성들이 중원의 옛 용주를 방불케하나 반도갱어는 지나치다고 하였다. 장천사 근이 또 이르기를 여인들이 잠상을 잘 알고 선비들은 학문을 알고 의관문물이 완연히 중화와 같다고 하였다. |
| 중화 | 1759 | 백성의 성품이 질박하여 쉽게 이끌 수 있다. |
| 증산 | 1759 | 땅이 좁고 사람이 적다. 비록 숭상할만한 재예가 없어도 농사짓기에 편안해하고 순후한 풍속이 있다.[地狹人小雖無才藝之可尚安於耕作頗有淳厚之風俗] |
| 창성 | 1759 | 질박하여 꾸밈이 없고 무예를 좋아하고 숭상한다.[質朴無文好尚武藝] |
| | 1872 | 검소함을 숭상하고 변방의 풍속에 물들지 않아 일삼는 것은 밭갈이와 양잠이고 쓰는 것은 문무이다. 인사들이 본업을 좋아하여 의를 강하고 충성을 존모한다. 비록 한 귀통이에 있으나 齊·魯의 변화를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팔조의 가르침에서 연유한 것이니 인현의 남은 교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 철산 | 1759 | 순후하고 검소하다. 문을 좋아하고 무를 업으로 삼는다[俗尚淳儉好文武] |
| | 1872 | 검약을 숭상하고 행의를 장려한다. 문무를 좋아하고 농상에 근실하다. |
| 초산 | 1832 | 민인의 성품이 질박하고 곧다. 농상에 힘쓰고 무예를 숭상한다.[民性質直 務農桑尚武藝] |
| | 1836 | 위로부터의 교화를 풍이라 하고 아래에서 익힌 것을 속이라 한다. 이는 한 지방이라 선악이 부동하고 후박이 서로 다르니 오직 이끄는 바에 따라서 달라지니 기록하지 않을 수 없다. 민성이 중후하고 질박하다. 농상에 힘쓰고 근검을 숭상한다. 선으로써 이끌어주면 쉽게 따라 교화된다. 변방 귀통이에 있어 왕화를 입지 못해 풍속이 오히려 완전히 순후하지 않으나 효자와 열부가 간혹 있으니 인현의 유풍과 성조의 이름다운 교화가 미쳐서 그런 것인가. |
| 태천 | 1759 | 산천이 맑고 수려하고 토지가 척박하다. 백성은 농상을 업으로 삼고 풍속은 순박함을 숭상한다.[山川明麗土地瘠薄民業農桑俗尚淳朴] |
| 평양 | 1730 | 황명학사 송렴이 이르기를 기자의 나라를 위에서는 중히 여기고[常尊] 아래에는 동등하게[等夷] 있으니 선왕의 유풍이 실로 존재한다. 바로 中夏로써 보아야지 외국의 예로 말해서는 안된다. |
| | 1780 | (팔조법금~권근기까지 여지승람과 동일)+항음주례를 행하고 관혼상제는 주문공가례를 준행한다-본조이래풍속 |
| | 1837 | 악기에 이르기를 주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여 예악을 일으키니 조야가 무사하고 인민이 기뻐하였다. 대동강은 황하에 비하며 영명명은 고산에 비한다. 노래를 지어 그 입금을 송축하고 기도하였다./ 요동지에 이르기를 동방에 기자가 교화를 일으킨 땅이라 순미한 습속에 물들어 먼 곳에도 단서가 있다./황명학사 송렴이 이 |

| | | |
|----|------|-------------------------------------------------------------------------------------------------------------------------------------------------------------------------------------------------------------------------------------------------------------------|
| | | 르기를 기자의 나라가 위에는 아직 중히 여기고[常尊] 아래에는 동등하게[等夷] 있으니 선왕의 유풍이 실로 존재한다. 바로 中夏로써 보아서 외국의 예로 말해서는 안된다./왕창이 이르기를 조선은 옛 기자의 후예로 문물제도와 친소귀천의 체가 화연이 제하의 유풍이 있다/예겸이 말하기를 기자가 팔조의 가르침을 베풀어 백성을 가르치니 지금까지 유풍이 상존한다. |
| 함중 | 1759 | 분수를 지키고 본업에 편안해하며 숭상하는 바는 오직 농사이다.[守分安業所尙惟農] |
| 후창 | 1872 | 거민이 농사를 업으로 삼고 시서를 귀히 여기지 않으며 무예를 익히지 않는다. 면화를 심지 않고 마를 심어 베를 찐다. 의약의 방도가 없어 질병이 있으면 소를 잡아 기도하기를 일삼는다.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로 복인은 검소하고 남인은 유순하다. 간혹 사냥고 어리석은 자가 있다. |
| | 1899 | 土民樂業: 태산이 첩첩하고 단애절벽이 좌우로 둘러싼 중에 하늘이 빛어낸 기이한 땅에 땅은 보화의 물을 품었다. 들이 넓고 산이 깊고 샘이 달고 땅이 비옥하여 사람이 태어나 생업을 즐겁이 중산광토 아래에 있지 않다. 면화를 심지 않고 생마로 포를 만들고 근면하게 농사를 지으니 비록 베를 두드리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고 문학에 이롭이 없으나 아주 어두운 것은 아니다. 인성이 질박하고 노둔하고 풍속이 무역하고 완고하니 지연의 이치이며 어쩔 수 없는 습속이다. |
| 희천 | 1759 | 농사와 양잠을 숭상하고 그 다음으로 화목을 숭상한다[崇尙農桑次尙和睦] |

위의 <표 2>는 <여지승람> 단계 이후 평안도 각 지역의 풍속조에 인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정리한 것이다.²¹⁾ <여지승람> 단계에서 풍속 항목이 없었던 강계, 강동, 강서, 개천, 광산, 덕천, 맹산, 박천, 벽동, 삭주, 삼등, 삼화, 상원, 선천, 성천, 순안, 안주, 양덕, 영변, 영유, 용강, 용천, 운산, 은산, 이산, 자산, 정주, 중화, 증산, 창성, 철산, 초산, 태천, 함중, 후창, 희천 등 36개 고을 풍속이 1690년 이후 19세기 중엽에 이르는 동안 새로 기술되었다. 구성, 위원, 의주, 평양 등의 풍속도 새롭게 바뀌거나 증보되었다.

새롭게 기술되거나 증보된 풍속의 내용에서 눈에 띄는 점은 ‘문’의 강조이다. 16~17세기 동안 평안도 지역에서도 문교가 확대되었고, 위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강동·강서·광산·구성·박천·삭주·선천·순안·안주·양덕·창성·철산·평양 등은 무와 함께 문을 숭상하는 기풍을 기록했다. 지역민들이 문무에 고르게 힘쓴다는 기술이 지리지 풍속조에 등장하면서 <여지

2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평안도 도지 및 군현 읍지와 국립고궁박물관 환수읍지(고궁 2798) 중 평안도 각군 읍지, 영조대 여지도서에 수록된 풍속 기술을 검토하고, 풍속 기술에 변화가 나타난 경우만을 표로 정리하였다. 동일한 풍속 기술이 반복되는 경우는 표에서 제외하였다.

승람)에서 도드라졌던 지역 풍속의 이미지는 약화되었다.

이런 변화는 이 지역에 부임한 관료들의 노력과 관련된다. 16세기 후반 평안도관찰사를 역임한 윤두수는 정치의 득실과 지역 풍속이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 하에 평안도 지역 읍지를 서술하면서 적극적으로 풍속을 관찰하고 기록했다. 그는 16세기 <여지승람> 단계에서 다수 등장하는 비교 조건, 즉 제나라, 노나라, 지치를 이룬 나라의 구분을 활용해서 『平壤志』 풍속조의 서문을 구성했다.²²⁾ 즉, “서로 부는 것을 風이라 하고 서로 물드는 것은 俗이라 한다. (중략) 풍속이 사람들에게 옮아가는 것을 정치가가 관찰하니 어찌 염려하여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는다면 어찌 齊나라가 한번 변하여 魯나라가 되고 魯가 한번 변하여 道에 이르렀다고 하겠는가”고 하여 풍속의 변화를 잘 살펴 좋은 방향[道]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치자[爲政者]의 할 일로 규정한 것이다.²³⁾

윤두수가 『평양지』를 펴낸 이래 평양 읍지는 꾸준히 증보되었고 풍속 기술도 변화했다. 1730년 평양감사 尹游의 주관하에 펴낸 『평양속지』에서는 평양에 왔던 명나라 사신 송렴이 조선을 중하와 다를 바 없으며, 외국의 예로 말해서는 안된다고 높이 평가한 일을 기록했다.²⁴⁾ 1780년에는 향음주례를 행하고 가정에서는 주자가례를 준행한다는 평양의 예속을 기록했다.²⁵⁾ 이와 같은 평양 풍속의 변화상은 평안도 전체 지역 보다는 삼남에서의 변화와 비슷하다.

지역 교화와 관풍의 책임을 졌던 지방관 뿐 아니라 지역 외부의 명사들도 지역 풍속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평양 동쪽에 바로 인접한 고을이었던 강동을 살펴보자. 강동 지역은 <실록지리지>과 <여지승람> 단계에선 고을 풍속을 기록하지 않았다. 1705년에 편찬된 『江東誌』에도 풍속 항목이 없었다.²⁶⁾ 그런데, 1656년(효종2) 유형원이 편찬한 『東國輿地志』에는 강동현

22) <여지승람>의 齊, 魯, 周[至治]의 구분과 풍속 평가에 대해서는 김지영, 2022, 앞의 논문, 162~172쪽.

23) 『平壤志』(古4790-2) 卷1, 『風俗』

24) 『平壤續誌』(古4790-1) 卷1, 『風俗』

25) 『邑誌』(고궁 2798) 60책, 平壤監營, 風俗. 이 읍지는 윤두수 『평양지』-윤유 『평양속지』로 이어지는 계통과 다른 유일한 평양 읍지이다.

〈流寓〉 항목에서 曹好益이 이곳에 머물 때 지역인들을 가르친 일과 강동 풍속에 영향을 준 사실을 기록했다. 조호익은 이황의 문인으로 1575년 균적을 정리할 때 閑丁 징발에 반대하다가 토호로 몰려 강동현에 유배되었다.²⁷⁾ 『동국여지』에서는 그가 무려 17년간이나 이곳에 있으면서 學規를 세우고 지역인들을 가르쳐 강동 지역을 西河의 풍속, 즉 자사가 머물며 가르치던 곳의 풍속으로 변모시켰다고 기록했다.²⁸⁾ 허목의 『記言別集』, 조호익의 문집인 『芝山集』 등에서는 교육의 내용을 더 서술했는데, 단을 쌓고 鄉飲酒禮로써 지역인들을 가르쳤다고 했다.²⁹⁾ 그 결과의 반영인지 1759년 〈여지도서〉에서는 강동 풍속을 “문교를 숭상하고 활쏘기와 수레몰기[射御]에 힘쓰고 농상에 근면하다”라고 기록했다. 문교를 숭상하는 풍속에 18세기 지역의 사회경제적 성장보다는 16세기 후반 조호익과 같은 문사의 학규와 향례를 통한 교육이 큰 역할을 했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다.

평양과 서쪽으로 인접했던 江西 지역에서도 문을 숭상하는 기풍을 언급했다. 강서현은 〈실록지리지〉과 〈여지승람〉 단계에선 고을 풍속을 기록하지 않았다. 강동현과 마찬가지로 본래 평양에 속했다가 독립 군현으로 분리된 지역이었다. 강서현의 첫 풍속 기술은 영조대 〈여지도서〉에서 볼 수 있는데, “농사와 길쌈에 힘쓰고 문무를 숭상한다”라고 하였다. 1829년에 작성된 읍지에서는 ‘문무 숭상’의 배경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했다. 송시열의 글을 인용해서 예교가 행해지지 않다가 변화한 상황을 기술한 것이다. “은나라 선생 [기자]으로부터 본조에 이르기까지 수천년 동안 은택은 끊기고 가르침은 느슨해져 말달리는 것과 칼을 시험하는 것을 일삼는다. 松亭 金泮 선생이 그

26) 『江東誌』(奎17481)

27) 허목이 지은 묘지문에서 자세한 사정을 논한 바 있다. 창원에 부임한 경상도 도사 崔滉이 한층을 찾아내는 일을 조호익에게 시켰는데, 조호익이 대상은 마쳤으나 아직 담계를 지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을 듣지 않았다. 조호익은 이 일로 가족이 모두 변방으로 옮겨 가는 처벌[全家徙邊]을 받았고, 17년 동안 강동에 머물며 지역인들을 가르쳤다. 임진왜란 때 선조가 평양성까지도 버리고 떠나게 되었을 때 유성룡의 부탁을 받고 의병 500인을 모아 상원, 중화 지역에서 공을 세웠고, 1593년에는 명군과 함께 평양성 수복을 도왔다. 『記言別集』 卷17, 丘墓文, 芝山先生墓碣銘)

28) 『東國輿地志』 卷9, 平安道

29) 조선시대 향음주례와 교민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지영, 2018, 「조선시대 국가 향례의주의 예교론 검토」, 『조선시대사학보』 87, 179~183쪽 참조.

사이에 일어나 능히 經術로 이끌어 향할 바를 알게 했다.”³⁰⁾ 송시열이 거론한 김반은 강서 출신의 권근 제자이다. 학행으로 추천되어 성균관에서 40여 년간 있으면서 제자들을 가르쳐 대사성까지 역임했던 인물이다. 강서의 鶴洞書院이 김반을 제향한 곳이다.³¹⁾ 기자 때 이래로 조선이 설 때까지 관서 지역에는 ‘은택이 끊겼고’, 조선 초에 김반과 같은 인물이 나와 지역인들이 향할 바를 알게 했다고 보았다.

강서현이 있는 지역에는 조선 이전에도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왜 ‘은택이 끊겼다고 했을까. 이는 나라는 있었으나 백성을 위해 제대로 된 정치가 행해지는 나라는 없었다는 조선 특유의 문명의식을 전제한 설명이다. 제대로 된 정치와 향할 바를 알게 하는 가르침이 있으면 얼마든지 문명화되고 풍속을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은 읍지에 수록된 강서 향교 『移建史蹟碑文』에서도 볼 수 있다.

공자가 이르기를 노나라가 한번 변해 도에 이르고 제나라는 한번 변해서 노나라에 이른다. 제나라는 환공 때로부터 민속이 날로 공리를 쫓았다. 공자는 정치를 제대로 하면 변화할 것이며, 도에 이르는 것이 노나라에 비해 늦고 빠름이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그런 즉 관서가 호서, 호남과 영남에서 보면 제나라와 노나라 같지만, 오직 교화로 이끄는지 여부에 달려있을 뿐이다.³²⁾

평양과 평양과 인접한 강동, 강서 외에 평안도 지역의 대부분의 고을도 <여지도서> 단계에서 농사에 충실하거나 문 또는 무예를 닦는다는 ‘본업’에 대한 기술 외에도, 순후하고 질박하거나 검소하고 근실한 고을 사람들의 성품을 풍속으로 기술했다.

평양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구성 지역 또한 문교를 숭상하는 지역으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했다. <여지승람> 단계에서 “활쏘기와 말타기에 힘쓴다”,

30) 『江西縣誌』(奎17482), 風俗.

31) 『江西縣誌』(奎17482), 院享.

32) 『江西縣誌』(奎17482), 學校; 『晉菴集』 卷6, 江西鄉校移建記

“간소하고 질박한 것을 숭상한다”라고 했던 구성은 <여지도서>에서 “문교를 숭상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후 읍지들에서도 구성은 문교를 숭상하는 관서의 대표적 고을이었다.

평양의 동북쪽 자모산성을 중심으로 군사적 역할이 중요했던 자산의 경우도 1745년 경 편찬 읍지에서 세 가지 내용으로 풍속을 서술했다.³³⁾ 첫째, 기자의 옛 땅에서도 변두리에 있지만 풍속은 오히려 두텁고 질박하다는 것이다. 기자의 은나라는 주나라와 다른 질박한 풍속을 가졌다고 알려졌는데, 자산이 도리어 기자 문화의 유풍을 평양과 같은 곳보다 더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셈이다. 둘째, 향약을 신명하여 예교를 닦는다는 점을 기록했다. 나라의 운세가 형통하고 평안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셋째, 선비는 경술을 닦고 백성은 농사와 길쌈을 업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세 가지 풍속 어디에서도 서북의 상무적 기풍을 엿볼 수 없다.³⁴⁾

평안도에서도 가장 동북쪽에 위치해 폐사군 지역을 관할하던 江界는 1760년 무렵 여행할 때 먹을 것을 싸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는, 각박하지 않은 곳이었다. 1832년 경에도 대부분 산곡 간의 초가집이나 판자집에 살면서 ‘公會’가 없고, 개시 교역을 하며 사사로이 구매하는 지역이었지만, 각박하지 않은 기풍을 유지했다. <여지도서>와 다른 점은 푸닥거리와 신사를 좋아한다는 내용이다.³⁵⁾ 1839년 읍지에서도 거주민이 매우 적고, 마을이 거의 없으나 백성들이 안분하며 각자의 본업을 지키고 산다고 기술하였다. 교묘하게 속이는 풍습이 없으며 여행자들도 식량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고 하여 각박하지 않음을 강조했다.³⁶⁾

의주는 <여지도서>나 1780년 읍지까지는 이전과 같은 풍속을 기술하다가

33) 『慈山誌』(奎17409), 風俗.

34) 1745년 『慈山誌』이 읍지의 편찬 경위와 편찬자는 잘 알 수 없지만, ‘諺傳’의 형식으로 지역에 전해지는 여러 이야기들을 기록하며 고을의 역사를 새롭게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인들의 주도 또는 협력 하에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새로 기술된 고을 역사 속에는 임진왜란, 정묘·병자호란 당시 절의 사실이나 개인의 안위보다 나라의 위기에 분루를 삼킨 지역인들의 이야기들이 담겨졌다.

35) 『邑誌』 58~59책(고궁2798), 江界府邑誌, 風俗. “信巫祝 喜神祀”

36) 『江界誌』(奎17506), 風俗

1832년 읍지에서는 ‘유순하고 복식이 감소하다’는 풍속을 추가했다. 폐사군의 하나였던 楚山은 1832년에 민인의 성품이 질박하고 곧다는 기술을 얻었다.³⁷⁾ 1836년 읍지에서는 “위로부터의 교화를 風이라 하고 아래에서 익힌 것을 俗이라 한다. 한 지방이라도 선악이 같지 않고 도탑고 박함이 서로 다르다. 오직 이끄는 바에 따라서 달라지니 기록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끄는 바에 따라 풍속이 달라진다는 예교론을 펼치며 고을의 풍속을 기술했다. 민인의 성품이 重厚하고 質直하며 농상에 힘쓰고 근검을 숭상하며, 선으로써 이끌어주면 쉽게 교화된다고 했다. 왕화가 직접 미치기에는 먼 곳에 있지만 仁賢의 유풍, 즉 기자의 가르침이 지역의 오랜 전통으로 남아 지역 풍속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의 옛 지역이라는 지역 역사 지식도 지역 정체성 형성의 중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³⁸⁾

순후하고 질박하다는 것을 넘어 박천에서는 “효제에 근심하다”, 상원과 회천에서는 “화목을 숭상한다”, 양덕에서는 “교화를 따른다”는 내용으로 고을이 성취한 예교문명의 구체적 내용을 더 자세하게 기술했다. 19세기 일부 평안도 지역 읍지들은 ‘유순함’을 고을 풍속에 기술하기도 했다. 의주 외에도 성천은 1872년 읍지에서 산수가 모이고 풍기가 맑아서 민속이 부드럽고 온화하여 사나운 기습이 없다고 했다. 용천도 <여지도서> 뿐 아니라 1872년 읍지에서도 산이 적고 들이 많고 땅이 두텁고 물이 완만한 고을의 풍기를 거론하며, 인성이 유순하고 민속이 소박하다고 기술했다. 은산에서는 1899년 읍지에서 오직 柔懦[부드럽고 나긋나긋함]를 숭상하고 소송을 즐기지 않는다고 하여 보다 화합과 화목한 분위기를 중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³⁹⁾

이렇게 평안도의 많은 고을들이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중엽에 이르는 동안 조선 예교문명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내면화하며 고을의 풍속을 관찰하고 기록했다. 지방관이나 지역 출신 또는 외부에서 온 지역 명사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학교·향례를 통한 교육, 인현[기자] 유풍에 대한 강조에서 드

37) 『邑誌』 57책(고궁 2798), 楚山邑誌, 風俗

38) 『楚山誌』(奎17507), 風俗

39) 『殷山郡邑誌』(奎10918), 風俗

러나듯 전설이나 기념물 등을 통해 형성해 온 지역 역사 지식들이 얽히며 앞선 시기의 상무 기풍 일변도의 토풍 인식으로부터 벗어났다. 물론 강계·강동·곽산·구성·벽동·삭주·선천·안주·양덕·영원·영유·용강·은산·의주·이산·창성·철산·초산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많은 고을들에서 武를 중시하는 고을 풍속을 기록했다. 흥미로운 점은 상무 기풍을 더 이상 비문명의 표지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상무 전통을 자랑스럽게 재해석해낼 수 있는 계기가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4. 18~19세기 예교 문명의 전유와 尙武 전통의 재해석

평안도 지역에서의 유구한 정치전통은 기자조선으로 대표되었다. 기자조선의 옛 땅이라는 데에서 비롯된 ‘인후한 고장’이라는 담론이 우위를 차지하면서, 고구려의 옛 땅이라는 데에서 비롯된 ‘사납고 강하고 용맹하다’는 옛 풍속의 비중이 약화되기도 했다. 영조대의 관료학자 李天輔의 글에는 18세기 당시 관서의 변화된 풍속이 잘 묘사되어 있다.

국가의 문치의 교화가 호남과 영남이 가장 성하여 세간에서 추로의 고을이라고 부른다. 중세에 사대부가 문학을 사용해서 세상에 쓰이는 자가 수없이 이어졌으나, 관서는 그 땅이 요새와 접하여 그 풍속이 활쏘기와 말달리기를 좋아하며, ‘武健’으로 귀인이 되었다. 국가가 평화로워진지 100여년에 점점 유학을 향하고 문사를 닦아 경사에까지 이름난 자가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많다.⁴⁰⁾

흥미롭게도 17세기 말~18세기 후반 지역 읍지에서는 새로운 경향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상무 기풍과 연결된 강한 품성을 거칠고 사납다고 비판하지

40) 『晉菴集』卷6, 江西鄉校移建記

않고 강직하고 질박하다고 긍정했다. 동시에 지역인들은 지역 역사 속에서 지역을 뛰어넘는 국가공동체에 대한 기여의 사례들을 발견했다. 지역에서 자라는 동안 길러진 강직한 개개인의 기질은 공공을 위해 사익을 돌보지 않는 忠厚한 덕성의 자원이 되었다. 여러 차례의 위기에서 지역인들이 발현했던 충후한 기상 덕에 조선의 변방 고을들은 조선을 수호하는 충의의 고장이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 고을에서 볼 수 있듯이 관서 지역에서는 무과를 통해 관료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 정부가 예교와 홍학을 수령의 주요 임무를 삼고, 업문에 대한 여러 우대책들이 등장하면서 용강처럼 業武하는 이들이 줄어들고 業文이 늘어나는 변화도 나타났다. 지역 학교를 통해 문학을 하는 선비들이 늘어나고, 명사들이 유배 또는 우거하며 지역 예교에 일정한 역할을 하면서 관서 지역의 풍속 변화를 이끌었다. 한편, 이러한 경향과 달리 무예의 고장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풍속 기술도 점차 보이기 시작한다.

우선, 용천 지역의 경우이다. 용천은 의주 서남쪽 압록강 초입에 위치해, 의주와 함께 龍巒으로 병칭되던 고을이다. 1796년에 편찬한 『龍城誌』에서 “인성이 柔順하고 민속이 朴素하다. 家舍는 꾸미지 않고 의복은 사치하지 않는다. 文武를 업으로 삼고 農桑에 근심하다. 地誌에 이르기를 풍속이 질박하며 도탑고 부화하게 꾸미지 않는다”는 고을 풍속을 기록했다.⁴¹⁾ 이 『용성지』는 1708년 용천부사 李汝玉이 지역인들과 함께 제작한 읍지를 바탕으로, 1756년과 1796년에 각각 수정·증보하여 편찬한 책이다. 『여지도서』와 그 내용을 거의 전제한 1780년 읍지와는 수록 내용이 크게 다르다.⁴²⁾ 고을 풍속의 경우에는 18세기 후반 당시 평안도 다른 읍과 비교해볼 때 특별한 차이점은 없다.

그런데 이 읍지의 인물조 첫머리에는 지역 유향대부의 유래를 기록한 〈留鄉〉이라는 항목이 있다.⁴³⁾ 임진왜란 때 의주로 피난갔던 선조가 호종했던

41) 『龍城誌』(奎17499), 風俗. “人性柔巽 民俗朴素 家舍不飾 衣服不侈. 務文武 勤農桑 - 輿地誌云 風俗朴厚 不飾浮華”

42) 1780년 읍지는 『읍지』 54책(고궁2798), 『龍川府邑誌』이다. 이 읍지의 편년은 이재두, 『2011년 환수한 국립고궁박물관 『읍지』 74책의 유래와 특징』, 『조선시대사학보』 94, 2020, 389~392쪽을 참조.

지역인들에게 三顯宴을 베풀었는데, 그 때 참석한 右族들의 題名案에 ‘留鄉大夫’라는 이름을 어필로 써서 내려주었다. 지역 사족들은 이를 의주부에 봉안해두었다. 이는 서북인들의 문벌을 볼 수 있는 명부가 되었고, 지역 명사들은 이 명단에 대대로 200년간 이름을 올리며 유지해왔다. 지역에서는 이 향록에 오른 가문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율곡 향약을 기준삼아 향약을 실천했었는데, 향임 자리 등 지역 사회 이익을 둘러싼 향전이 벌어지며 명단에 오를 자격을 두고 분쟁이 생기게 되었다. 지역 내 다툼이 커지자 1735년(영조11)에 조정에서는 평안감사 閔百祥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 명단에 아무나 이름을 올리지 못하게 하고 향청의 명호도 없애버렸다. 정조 경술년(1790년)에 定州에서 또 新鄉이 향록에 이름을 올리는 일이 생겨 다시 엄한 처분이 내린 후로 향록을 벽장에 넣어두고 추록하지 못하게 했다.⁴⁴⁾

〈유향〉조에서는 이같은 내력을 기록한 서문에 이어 1756년(영조32)까지 향록에 오른 이들을 명단을 일일이 기록해 후손들에게 지역 명족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용천과 의주 지역에서 새롭게 성장한 신향들과 양산시 충의행적으로 부상했던 지역 사족들의 다툼 한가운데에는 ‘충의’ 행적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친구세력 모두 지역에서 행세하기 위해서는 이 문화자본을 성취해야 했고, ‘충의’는 과거 뿐 아니라 18세기 후반 당시에도 지역인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중요한 정체성의 속성이 되었던 것이다. 〈유향〉조 뒤에는 또 지역의 효행, 정렬, 충의 인물들을 기록했

43) 『龍城誌』(奎17499), 留鄉(31~35쪽). “萬曆壬辰 宣廟西狩及回鑾之日 招諭西土扈從者設三顯宴 辨別上下之分 使其右族題名案 錄賜名曰留鄉大夫 御筆書下 至今奉案于澗府 而西土奉行關西閔辦婚班以繼代錄案者二百年所矣. 蓋厥初規模一遵栗谷鄉約 而世道漸降鄉風日壞 列邑以濫雜許錄 反爲鄉戰之端 英廟己卯道臣閔百祥設弊陳達 嚴禁雜鄉許錄 革罷鄉廳名號 今上庚戌以定州之新鄉濫錄新鄉事 仍道臣下教曰 鄉錄一事 新有朝禁 不啻嚴命 渠敢爲此無前古之舉措乎. 西土之民 其可曰朝廷有金石之典乎. 使西路衣冠之族 歸於滅悖理之科 此輩所爲尤所痛惡 自是之後 本府鄉錄鎖藏于時所壁中不敢追錄. 鄉約後二百年之間 有繼世之家 有絕世之家 惑絕而復繼或錄 有先後子孫多不盡載 而撮其各姓始錄之派祖以明鄉班之本源 觀者當於留鄉先生案詳之.”

44) 당시 정주에서 돈을 받고 향안에 마음대로 이름을 올리는 일이 발생했다. 읍안에 등록된 이가 384명, 영안에 등록된 이가 364명이었고, 예전의 명목으로 받은 돈이 4만 6849냥이었다. 정주에는 대대로 내려온 사족이 없고 향임 한가지 통로로 등위를 나눈다고 했다. 『일성록』, 정조 14년 4월 15일 을축) 향임은 향안에 기초하는데, 그 향안이 왜란시 호종했던 인물과 그 가문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것을 읍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는데, 그 중 충의 항목에는 임진왜란 때의 호성공신, 1619년(광해 11) 심하 전투 순절인, 1627년(인조 5) 정묘호란 당시 용골성, 소위포, 장산 전투의 전몰자 등을 잇달아 기록했다. 국왕에 의해 공인된 명단에 수록되었던 유향대부들 외에도 수많은 충의로운 용천인들을 읍지에 적었고, 이들에 대한 기억을 지역 정체성의 일부로 삼았다.⁴⁵⁾

용천과 마찬가지로 선천 지역의 읍지도 1708년 부사 박태규와 1729년 부사 조엄이 부임했을 때 편찬한 읍지가 모든 후대 읍지의 저본이 되었다. 선천읍지는 가장 앞머리에 이 읍지는 오로지 충효와 절의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선언할 정도로 충의 행적의 기억에 힘을 기울였다.⁴⁶⁾ 읍지에서는 풍속 항목을 따로 두지 않았지만, 〈향약〉 항목에서 고을 풍속을 논했는데, 선천이 관서에서 가장 순후하고 신실하며 겸양한 위위가 빼어난 고을이라 자부했다.

우리 고을은 땅이畿輔에서 멀어簞纓이 드물지만 순후한 풍속과 신실하고 겸양한 위위가 서방에 제일이라 칭해진다. 대개 요동백을 비롯해 溟河 지역에서 순절한 읍중의 건인들이 수백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椴島의 중화인들이 절의의 고을이라고 지목하고 존경의 뜻을 표하니, 이 때 이후로 鄉에는 좋은 사람이 있게 되고 마을에는 좋은 풍속이 있게 되었다. 이로부터 邑의 기강을 유지하고 鄉黨을 정돈하여 노성한 사람은 존경하여 받들고 연소한 무리들은 장려하여 나아가게 했다. 一方의 조치가 鄉社가 팽팽한가 느슨한가에 관계되니, 이리저리 부딪치며 좌충우돌하는 사람을 볼 수 없게 되었다.⁴⁷⁾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읍지의 작성자는 선천이 관서 제일의 풍속을 갖게 된 이유를 1619년(광해11) 요동 심하 전투 이후 선천 출신의 무사 수백인이 순절한 일에서 찾았다.⁴⁸⁾ 전투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강홍립과 김

45) 『龍城誌』(奎17499), 『忠義』(40~60쪽)

46) 충의사적을 중심으로 편찬된 선천 읍지 중 현전하는 것은 1854년의 『선천군읍지』(奎10937)와 1872년 『관서읍지』(奎12168) 중 선천읍지이다. 상·중·하 3권으로 구성되었다. 따로 풍속 항목은 없지만 「방리」, 「학규」, 「향약」 등의 항목에서 선천 풍속의 우수함에 대해 기술했다.

47) 『宣川郡邑誌』(奎10937) 卷之下, 鄉約

경서가 청군에 투항했음에도 선천부사였던 김응하가 끝까지 싸우다가 전사했고, 선천인들도 김응하와 함께 전투에서 생을 마쳤다.⁴⁹⁾ 靉島에 있던 명나라 사람들이 선천 사람들이 명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은 일에 감사하며 ‘절의 지향’이라고 부르며 존경하였던 일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절의를 실천한 역사와 이에 대한 감사와 인정이 있게 된 후 고을에 인재와 좋은 풍속이 있게 되었다고 보았다.⁵⁰⁾

실제 읍지에는 심하 전투에 김응하와 함께 참여해 순절한 31인의 이름과 이들의 행적을 기록한 「深河殉節諸人」 항목을 필두로 「金島死節義士」, 「蝶島義士」, 「月峯義士」, 「清江義士」, 「凌漢義士」, 「辛巳冤死」 등의 항목을 두고 정묘, 병자호란 시기 선천 출신 충의 인사의 사적을 기록했다.⁵¹⁾ 宣武功臣, 振武功臣, 扈聖功臣 등 임진왜란 관련 유공자들에 대한 항목도 기록했지만, 다른 정사 기록이나 문집 등에서 찾아볼 수 없는 관직이나 지위도 없는 선천인들의 충의 행적들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했다. 선천 읍지 편찬자들은 생사를 뛰어넘는 실천과 그에 대한 인정으로 인해 생긴 명예의식과 자부심이 선천 고을 풍속이 변화하게 된 계기였다고 보았다. 그로 인해 고을에서는 좋은 사람이 배출되고 좋은 풍속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향약 조직인 鄉社의 활동으로 오래 지속될 수 있었다. 읍지는 고을 향약의 의의를 이와 같이 설명했다.

48) 심하전투는 명청 교체를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만들었던 사르후(薩爾滸) 전투의 일부로 전개되었다. 심하전투의 전개과정과 조명연합군의 패전 이유는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8, 353~373쪽; 허태구, 「병자호란 이전 조선의 군사력 강화 시도와 그 한계」, 『군사』 109, 2018, 248~251쪽 참조.

49) 전쟁 이후 김응하 등 심하전투 관련인들에 대한 기억과 서사에 대해서는 김일환, 「명장 喬一瑞의 죽음으로 본 심하전역」, 『열상고전연구』 68, 2019; 장정수, 「조선후기 김경서 현창의 추이와 당대 사적 의미」, 『역사와 현실』 115, 2020; 이송희, 「김장군유사 연구 - 김응하 충렬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68, 2019; 이송희, 「김응하 충렬록 판본 변경과정과 그 의미」, 『유학연구』 46, 2020 참조.

50) 가도의 毛文龍이 선천을 ‘절의지향’이라고 부른 일에 대해서는 본 읍지의 「방리」 항목에도 기록되어 있다. 다만 여기서는 순절인의 수를 30여인으로, 「충신」 항목에서는 31인으로 기록했다.

51) 「金島死節義士」는 정묘호란 때에 비록 관직은 없으나 나라와 함께 휴적을 같이 하겠다며 창의하여 싸우다 전 가족이 죽임을 당한 향교 훈도 桂之文의 사적이다. 제지문의 일은 「여지도서」 선천군 인물조에 나오지만 본 읍지의 기록이 훨씬 상세하다. 「月峯義士」, 「清江義士」, 「凌漢義士」, 「辛巳冤死」 등은 본 읍지에만 기록되어 있다.

고을에 약속이 있는 것은 도타운으로써 화합하고 규칙으로 경계하기 위함이다. 一鄉은 부형과 종족이 있는 곳이다. 장로들은 깊숙이 앉아 있고 友朋들은 슬하에 앉으니 그 아래 사람을 아끼고 윗사람을 존경하는[梯長]의 의리와 친밀한 정이 질서 있으면서 법도가 있고 군세면서도 적실하다. 관작이 있는 자들도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길 수 없고 지혜가 넘치는 사람도 스스로를 현명하게 여길 수 없다. 오직 그 몸과 마음을 성실하게 하고 행동거지를 단속하여 독실하고 공손한 실질에 이르고 나아가 뾰고 음양하는 예절을 힘써 갖추어야, 사람들 사이에 서로 재제하고 지탱하여 일마다 반드시 돈독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향약의 뜻이다.⁵²⁾

임진왜란, 정묘~병자호란 당시 용천·선천 지역에서 배출한 충의인물들은 상당수가 무인들이었다. 그 밖의 다른 지역들도 무예로 나라와 지역과 고을인들을 지키고, 역사에 남을만한 절의인으로 인정받았던 경험을 읍지에 기록했고, 전래의 상무적인 풍속을 재평가했다. 의주의 경우이다. 의주는 <여지승람> 단계에서 “풍기가 군세어서 활쏘기와 말타기를 잘하고 사냥을 좋아한다”고 기술한 바 있다. 1760년 『여지도서』에서도 이러한 서술은 변하지 않았고, 이후 읍지에서도 이 기술을 유지했다. 1821년 의주 읍지에서는 ‘백성의 성품이 유순하고 복식이 검소하다’는 것이 추가되었다.⁵³⁾ 1849년에는 ‘충의를 존상하고 허락한 바를 매우 중히 여긴다-조정의 포상도 이 이유가 많다’고 기록했다.⁵⁴⁾ 삭주는 1800년 무렵의 읍지에서 “날래고 강건하며 군세대[剛勁]”고 기술했다. 용강도 <여지도서>에서는 유순하고 충후한 품성을 기록했지만, 1872년 읍지에서는 유순하다는 평가 대신에 “질박하고 충후하다”고 바꿨고, 무를 숭상하는 고을의 기풍을 강조했다.⁵⁵⁾ 1899년 읍지에서는 풍속이 강경하고 질박하고 용맹하며 무를 숭상한다고 했다.⁵⁶⁾

52) 『宣川郡邑誌』(奎10937) 卷之下, 鄉約.

53) 『七郡圖經』(想白古 915.18-C436) 4책, 義州上, 龍灣誌, 風俗. 이 책에 수록된 용만지는 1768년 서명선, 1804년 서유구가 편찬한 용만지를 1810년 추보한 판본이다.(<규장각지리지종합정보> 칠군도경 상세해설[김선경] 참조.)

54) 『龍灣誌』(奎798), 風俗.

55) 『關西邑誌』(奎12168) 3책, 同治十年十月日龍岡縣邑誌, 風俗. “本訥而多質 忠厚而少文 尙武多於業文矣.”

의주에서 동쪽으로 압록강에 면해 위치했던 昌城도 의주와 마찬가지로 무예를 숭상하는 기풍을 충의를 중시하는 삶의 지향과 연결되었다. 창성에는 요동백 김응하가 주둔했던 곳에 세운 충렬사라는 사우가 있었다. 또 1780년 관찬으로 펴낸 읍지에는 병자호란 때 창성부사의 항전지인 元帥窟이나 김응하가 심하 전투 직전 날이 저물어 불리하다는 어떤 할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을 건넜다가 복병을 만나 결국 전몰하게 된 이야기, 후금 군에게 포로로 잡혀 길을 인도하게 된 창성 사람이 후금 군을 데리고 수백리 우회하여 시간을 벌여주었으나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 이야기 등을 상세하게 실어 전쟁 당시 무명의 창성인들의 기여를 기록했다.⁵⁷⁾ 1821년에도 1780년의 “질박하여 꾸밈이 없고 무예를 좋아하고 숭상한다”는 풍속을 유지했다.⁵⁸⁾ 1872년 읍지에서는 창성의 과거 역사가 고을인들의 품성과 연결되었다. “인사들이 본업을 좋아하여 의를 강하고 충성을 존모한다. 비록 한 귀퉁이에 있으나 제나라와 노나라의 변화를 볼 수 있다”고 하며, 무예와 충의를 직접 연결시켰다. 본래 가지고 있던 무예를 좋아하고 잘하는 고을의 개성은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나라를 위해 몸을 내던진 충절의 행적과 버무러지며 가치를 재평가 받았다. ‘제나라와 노나라의 변화를 볼 수 있다’는 대목에는 창성이 조선 한 귀퉁이의 변방이지만, 동시기 어느 고을보다 문명화되었다는 자부심이 묻어난다.

18세기 평안도 여러 고을들은 임진왜란, 정묘·병자호란 시기의 충의사실을 강조하며 ‘충의지향’으로의 고을 정체성을 강조했다. 18세기~19세기 중반에 이르는 동안 무예를 숭상하던 변방의 고을들은, 무예를 잘하는 자신들의 장점을 활용해서 충의를 앞장서 실천했던 역사를 발굴해 기록하며 변방의 식으로부터 벗어났다. 충의지향이라는 정체성이 강조되면서 무예를 숭상하며 강하고 사나운 풍속은 문명과 거리감을 좁혔다.

56) 『龍岡縣誌』(奎10928), 風俗. “其俗強勁而多質 勇果而尙武 今則業文者多 武勇反遜”

57) 『邑誌』(고궁 2798), 54책, 昌城府, 古蹟

58) 『七郡圖經』(想白古 915.18-C436) 3책, 昌城誌, 風俗.

5. 忠義之鄉이라는 정체성과 지역 역사 해석의 변화

조선후기 평안도의 많은 군현이 조선 문명론을 전유하고 무를 숭상하던 지역 개성을 긍정하고 자부심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상무 기풍의 역사적 원인으로 거론되었던 고구려 역사도 다른 시각에서 관찰되고 기술되었다.⁵⁹⁾ <여지승람> 단계의 평양 풍속에서 볼 수 있듯이 평안도 지역의 풍속 기술에서 기자 조선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고구려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기술하는 전통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1759년 안주에서는 평양 풍속과의 영향관계를 강조하며, 기자조선의 유풍을 높이 평가하고 고구려 이래의 풍속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본주는 기자의 수도[평양]으로부터 멀지않아 예의와 전잠을 처음부터 팔조의 가르침을 따랐다. 『後漢書』에 천성이 유순하고 쉽게 이끌 수 있다고 하였고 『五代史』에는 풍속이 문자를 알고 삼년복을 입는다고 하였으니 이는 풍속이 바른 것이다. 『南史』에 이르기를 국인이 기운을 숭상하고 궁시와 창칼을 편하게 여긴다고 갑주를 입고 전투를 익힌다고 하였으니 이는 풍속이 변한 것이다. 『隋書』에 이르기를 경술을 좋아하고 文史를 좋아한다고 하였다. <목은기>에 이르기를 사람들이 본업을 좋아하니 이로써 보건대 옛사람의 유풍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⁶⁰⁾

기자 팔조의 가르침, 유순해서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것, 문자를 알고 삼년복을 입는 풍속 등은 좋은 것[바른 것]으로, 궁시와 창칼을 편하게 여기고 갑옷을 입고 전투를 익히는 풍속은 좋은 풍속에서 나쁘거나 혹은 덜 좋은 쪽으로 변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여지승람> 평양의 풍속 기술과 비슷하면서도 무예를 좋아하는 고구려 풍속에 대한 평가는 안주 쪽이 좀 더 박하다.

59) 허태용은 조선후기 고구려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임진왜란 이후에 등장했고, 명 중심 중화질서를 회복하려는 의지 속에서 지속되었다고 보았다.(허태용, 『임진왜란의 경험과 고구려사 인식의 강화』, 『역사학보』 190, 2006; 허태용, 『17세기 중후반 중화회복의식의 전개와 역사의식의 변화』, 『한국사연구』 134, 2006)

60) 『輿地圖書』, 平安道 安州, 風俗.

그런데 평안도 성천 지역에서는 다른 양상을 볼 수 있다. 평양의 동쪽 내륙에 위치한 이 고을은 曹好益, 鄭述 등이 잇달아 고을 수령으로 있으면서 정치와 교육을 행했던 곳이다.⁶¹⁾ 고구려 시조 동명왕이 북부여로부터 와서 비류수에서 松讓의 항복을 받고 건국한 곳이라고 인식했고, 관련 설화가 전해지는 장소들을 읍지 『고적』 항목을 통해 고을의 중요한 역사적 장소로 기억해왔다. 1603년(선조 36)에 부사로 왔던 李尙毅는 이런 고을의 역사를 담아 『成川誌』를 엮었고, 이를 1690년에 간행했다. 이 『성천지』 풍속조에는 “분부는 물이 깊고 흙이 두터워 거주하는 백성의 천성이 순하고 힘써 밭갈고 양잠한다. 복식이 검소하니 동명왕의 유속이 오히려 남은 것이다.”라고 했다.⁶²⁾ 영조대 <여지도서>에서는 “동명의 옛 수도로 힘써 밭갈고 양잠하니 유속이 오히려 남은 것이다”라고 고구려 중심지였던 것을 지역의 정체성으로 삼았다.⁶³⁾ 동명왕의 유속을 강하고 사나운 것에 연관시키기 않고 그 유속 덕에 검소한 기풍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러한 풍속 기술은 1690년 이래로 일관되게 지속되었다. 1872년 『관서읍지』에 수록된 성천지에서는 더 나아갔다.

산수가 모이고 풍기가 청숙하여 민속이 부드럽고 온화하여 사나운 기습이 없다. 선비들은 경전과 역사 공부에 근실하고 농자는 밭갈이와 길쌈에 힘쓴다. 工人은 그 기예를 잡고 상인은 재화를 유통하여 양생한다. 윗사람을 친히 여기고 어른을 섬기며 관령에 복종하고 공법을 두려워하기에 이끌기 쉽다. 이는 필시 동명의 유속이지만 기성 팔조 가르침이 사람에게 들어움도 깊은 것인가.

민속이 온화하여 사나운 기습이 없으며, 선비와 농자, 공인, 상인이 제각각 자기 일에 충실하고, 친친과 존존의 예법을 잘 실천하며, 관령과 공법을 지키는 것이 성천 지역의 풍속인데, 이것이 분명히 ‘東明의 남은 풍속’이지만 ‘箕聖 팔조의 가르침’도 깊이 영향을 주었다고 한 것이다.⁶⁴⁾ 동명의 유속을 강

61) 『東國輿地志』, 平安道 成川府, 「名宦」.

62) 『成川誌』(想白古 915.18-Se65), 風俗.

63) 『輿地圖書』, 成川, 風俗, “東明故都 力田務蚕 遺俗猶存.”

64) 『關西邑誌』에 수록된 성천 읍지의 제목은 「成都新誌」이다. <地異>조에는 동명왕이 건국할 때 쌓았

조했던 앞선 성천 읍지들보다는 평안도 전체 지역에 끼친 기자 가르침의 영향력을 환기시킨 것이다. 다만 왕도와 패도, 노나라의 도와 제나라의 도, 기자조선과 고구려 전통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왔던 전통과 달리, 위의 성천 풍속에서는 ‘동명 유속’과 ‘기자 유풍’을 크게 구분하지 않았다.

옛 유풍을 따른다고 할 때의 ‘옛 것[古]’라는 것도 중국에 있었던 이상사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던 옛 왕조를 지칭하기도 했다. 영변의 경우를 보자. 영변은 선조대 임진왜란, 광해군대 여진정벌, 정묘호란, 인조대 이괄의 난 때에 층의 사적을 풍부하게 가진 곳이었다. 이 곳에는 단군이 태어난 곳으로 알려진 묘향산 향로봉 아래 등천굴과 고구려 동명왕이 태어난 곳이라 알려진 優渤水 등을 지역의 고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이러한 영변 지역 풍속을 『동국여지지』에서는 ‘무예와 용맹함을 숭상한다’고 기록했다. 공적 읍지에서는 〈여지도서〉 단계에서 처음으로 풍속이 기술되는데, “품부 받은 성품이 소박하고 간략하다. 남의 잘못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 한다.[賦性朴略恥言人過]”이라고만 서술했다.

1832년 읍지에서는 “복식이 검소하고 옛날의 유풍이 있다.[服飾儉素有古遺風]”라는 기술을 추가했다. 여기에서 ‘옛날의 유풍’이란 명시적으로 알 수 없지만 읍지 서문에 “이 곳은 동방에 군장이 처음으로 생기고 남녘이 나뉘고 도가 통하여 처음으로 가르침이 시작된 곳이다.”라고 한 것을 보면 단군조선의 유풍을 지칭한 것을 알 수 있다.⁶⁵⁾ 단군조선의 역사를 동방에서 정치가

던 紇骨城의 신사에 얽힌 옛 이야기를 서술했다. 홉골성의 읍사가 유명해서 사망에서 구복하는 사 람들이 모여들고 요열이 일어났다. 부사 閔孝曾이 읍사 앞을 말을 타고 지나며 존중하지 않는 태 도 를 보였는데 말이 선 채로 죽어버렸다. 민부사는 굴하지 않고 죽은 말의 다리를 잡고서 신상을 때 리며 죄를 물었다. 그 후로 읍사의 기세가 주춤해지만 읍인들의 숭봉은 전과 같았다. 부 유생 장경 과 김익상 등이 이에 분격해서 불태워 버렸는데, 이를 관에 고소하며 형벌 내리기를 청하자 당시 방백이었던 윤두수가 죄를 묻지 않는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 이후로 읍사와 무격이 다시는 일어나 지 않았다. 이후 부사 정구가 성향신위를 봉안해서 요사를 놀러버렸다는 이야기다. 한 나라의 국도 였다는 사실에 근거한 무속 신앙이 위태로운 삶을 지켜줄 큰 위력을 필요로 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세력을 가졌다는 것, 16세기 말까지 이러한 민간의 신앙과 욕구를 세상을 바꾸는 합리적 인 노력으로 이끌려는 싸움이 오래 지속되었다는 것,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았 다는 것을 모두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성천에는 ‘무격을 숭상하고 귀신을 믿는’다는 풍속 기술은 사라졌다.

65) 『邑誌』(고궁2798), 57책, 寧邊府, 「風俗」

시작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여말선초부터 오랜 전통이지만, 그 역사를 기자 조선과 같은 ‘왕화’의 개념과 연결짓는 것은 지역 내 다른 고을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매우 흥미롭다. 함경도나 황해도, 강원도 지역에서 ‘왕화’라는 옛 왕조에 대한 기억이 지역 풍속과 조응하는 방식과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6. 맺음말

〈실록지리지〉와 〈여지승람〉에서는 평안도의 일부 지역의 풍속을 기록했다. 청천강 북쪽의 변경지역 고을이나 오랜 동안 지역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해왔던 평양 모두 활쏘기나 말타기를 잘하고 날래고 군세다는 상무적 기풍이 강조되었다. 또 가산이나 구성, 평양 등에서 보듯 질박한 바탕도 관찰되었다. 다만 〈여지승람〉 단계에서 경상도 및 전라도에 이미 출현했던 예속, 서로 다 투지 않으며 돌보고 사양하는 문화는 아직 평안도 지역에서 자취를 찾을 수 없고, 평양 풍속에서 볼 수 있듯 ‘사납고 교만하다’는 부정적 평가도 내려졌다. 〈여지승람〉은 〈실록지리지〉와 달리 출간 배포되어 평양과 평안도를 바라보는 조선의 시각을 형성했다. 평안도 풍속을 여타 지역 풍속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도 제공했다.

조선에서는 공공의 덕성을 문명의 지표로 여기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 여러 지역의 풍속을 평가했다. 평안도가 본래의 기질적 특성에만 머물러 있다면, 중앙과의 거리와 관계없이 평안도는 주변이고 변방일 수밖에 없었다. 외부로부터의 평가와 내부의 실천 의지 및 자기 평가, 조선이 처한 역사적 상황들이 뒤엎히며 이후 평안도에서도 경상도·전라도와 마찬가지로 지역 풍속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분투가 있게 되었다. 16~18세기 동안 관서의 중심지인 평양, 평양 인근의 강동, 강서, 자산 뿐 아니라 청북 국경지역에 가까운 강계, 초산, 성천 등 평안도 상당수 지역은 조선이 강조한 예교 문명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전유하며 문화적 변방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읍지에 기

재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많은 고을들에서는 武를 중시하는 기풍을 함께 기록했지만, 상무 기풍을 더 이상 비문명의 표지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형성되었다. 임진왜란과 정묘·병자호란 당시 지역인들의 공동체에 대한 자랑스러운 기여의 기억들은 상무 전통을 자랑스럽게 재해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18세기 용천이나 선천, 의주, 정주 등 평안도 고을들은 읍지에서 임진왜란, 정묘·병자호란 시기의 충의사실을 강조하며 ‘충의지향’이라는 자부심을 드러내며 고을 정체성으로 삼았다. 무예를 숭상하던 변방의 고을들은, 무예를 잘하는 자신들의 장점을 활용해서 충의를 앞장서 실천했던 역사를 발굴해 기록하며 변방의식으로부터 벗어났다. 충의지향의 정체성 속에서 무예를 숭상하며 강하고 사나운 풍속은 문명과 거리감을 좁혔다.

한편, 조선후기 평안도의 많은 군현이 무를 숭상하던 고을의 기질에 바탕해 충의지향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면서, 상무 기풍의 연원으로 거론되던 고구려의 역사도 다른 시각에서 관찰되고 기술되었다. 나아가 고구려의 유풍을 강하고 사나운 것에만 연관시키지 않고 그 유속 덕에 검소한 기풍을 가지게 되었다고 설명하거나, 선비와 농자, 공인, 상인이 제각각 자기 일에 충실하고, 친친과 존존의 예법을 잘 실천하며, 관령과 공법을 지키는 것 역시 기자의 가르침 뿐 아니라 고구려의 유속이라고 설명했다. 옛 유풍을 따른다고 할 때의 ‘옛 것[古]’라는 것도 중국에 있었던 이상사회가 아닌 고구려나 단군조선 등 그 지역에 있던 옛 왕조의 왕화로 연결되기도 했다. 평안도 이외에 함경도나 황해도, 강원도 지역에서 ‘왕화’라는 옛 왕조에 대한 기억이 지역 풍속과 조응하는 방식, 풍속 기술에서 줄곧 폄하되어 왔던 비문명의 풍속들이 새로운 정당화의 경로를 찾아가는 모습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고를 기약한다.

■ 참고문헌

- 『朝鮮王朝實錄』
- 『承政院日記』
- 『新增東國輿地勝覽』
- 『東國輿地志』
- 『陽村先生文集』
- 『晉菴集』
- 『平壤志』(古4790-2)
- 『平壤續誌』(古4790-1)
- 『江東誌』(奎17481)
- 『江西縣誌』(奎17482)
- 『慈山誌』(奎17409)
- 『江界誌』(奎17506)
- 『楚山誌』(奎17507)
- 『殷山郡邑誌』(奎10918)
- 『龍城誌』(奎17499)
- 『宣川郡邑誌』(奎10937)
- 『關西邑誌』(奎12168)
- 『七郡圖經』(想白古 915.18-C436)
- 『龍灣誌』(奎798)
- 『龍岡縣誌』(奎10928)
- 『成川誌』(想白古 915.18-Se65)
- 국립고궁박물관(www.gogung.go.kr): 『읍지』(고궁2798)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지리지 종합정보(kyujanggak.snu.ac.kr/geo)
- 고지마 쓰요시, 『송학의 형성과 전개』, 논형, 2004.
- 국립중앙도서관 편, 『국립중앙도서관 선본해제-지리지류-』 12, 국립중앙도서관, 2010.
- 국사편찬위원회 편, 『輿地圖書』上·下, 국사편찬위원회, 1982.
- 노상복, 『藏書閣圖書韓國本解題輯-地理類(Ⅰ)-』,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3.
- 문용식·김우철·이철성·변주승·서종태·이상식, 『국역 여지도서』 1~50, 디자인하름, 2006.
- 성락훈·김달진·김규성·김용국, 『新增東國輿地勝覽』Ⅰ~Ⅶ, 민족문화추진회, 1969.
- 신익철 외, 『역주 양도팔도민은시』,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9.
- 이상태 편, 『韓國近代, 道誌』 1~64, 韓國人文科學院, 1991.
- 이태진·이상태 편, 『朝鮮時代 私撰邑誌』 1~55, 韓國人文科學院, 1989.
- 피터 볼, 『역사속의 성리학』, 예문서원, 2010.
- 한국인문과학원 편집부 편, 『韓國近代邑誌』 1~64, 韓國人文科學院, 1991.

- 강문식, 『어말선초 성리학의 수용과 그 성격』, 『역사비평』 122(2018년 봄호), 2018.
- 김일환, 『명장 喬一琦의 죽음으로 본 심하전역』, 『열상고전연구』 68, 2019.
- 김지영, 『예교의 기능자-조선시대 경상도 지역 지리지 '풍속'조의 검토』, 『규장각』 52, 2018.
- _____, 『조선시대 국가 향례의주의 예교론 검토』, 『조선시대사학보』 87, 2018.
- _____, 『예교의 확산과 풍속 서술의 변화-조선시대 전라도 지역 읍지 풍속 기술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100, 2022.
- 배우성, 『18세기 全國地理志 편찬과 지리지 인식의 변화』, 『한국학보』 85, 1996.
- 백민정, 『조선 지식인의 왕정론과 정치적 공공성: 기자조선 및 중화주의 문제와 관련하여』, 『동방학지』 164, 2013.
- 서인원, 『조선초기 지리지 연구-동국여지승람을 중심으로』, 해안, 2002.
- 양보경, 『조선시대 사찬읍지 편찬에 대한 연구』, 『국사관논총』 81, 1987.
- _____, 『朝鮮時代 邑誌의 性格과 地理的 認識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87.
- 오수창, 『朝鮮後期 平安道 社會發展 研究』, 일조각, 2002.
- 이승희, 『김장군유사 연구-김응하 총렬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68, 2019.
- _____, 『김응하 총렬록 판본 변경과정과 그 의미』, 『유학연구』 46, 2020.
- 이은주, 『평안인의 자기 인식』, 『한국문화』 94, 2021.
- 장정수, 『조선후기 김경서 현창의 추이와 당대사적 의미』, 『역사와 현실』 115, 2020.
- 정석중, 『洪景來亂의 성격』, 『한국사연구』 7, 1972.
- 허명준, 『朝鮮後期-近代改革期 平安道の 政治·文物 伸張 研究』,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6.
-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8.
- 한형주, 『조선시대 역대 시조묘에 대한 의례적 고찰』, 『국학연구』 39, 2019.
- 허태구, 『병자호란 이전 조선의 군사력 강화 시도와 그 한계』, 『군사』 109, 2018.
- 허태용, 『17세기 중후반 중화회복의식의 전개와 역사의식의 변화』, 『한국사연구』 134, 2006.
- _____, 『임진왜란의 경험과 고구려사 인식의 강화』, 『역사학보』 190, 2006.
- Sun Joo Kim, *Marginality and Subversion in Korea - The Hong Kyongnae Rebellion of 1812*, Washingt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7.
- Sun Joo Kim, *Voice from The North: Resurrecting Regional Identity through the Life and Work of Yi Sihang(1672-1736)*,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3.
- Peter K. Bol, "The Rise of Local History: History, Geography, and Culture in Southern Song and Yuan Wuzhou",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61, No.1, 2001.

Reinterpretation of the Martial Tradition[尙武傳統] and the Identity of Loyal and Devoted Villages[忠義之鄉]

— Focusing on the Local Gazetteers of Pyeongando in the Joseon Dynasty —

Kim, Jiyoung*

In the 15th-16th centuries, the record of the dynastic geographies emphasized the strong martial spirit in some regions of Pyeongan province by depicting their archery or horseback riding skills. The culture of taking care of and respecting one another, which already emerged in Gyeongsang and Jeolla province, hasn't appeared in this area based on the record of *Yeojiseungram* (輿地勝覺). In Joseon Dynasty, the virtue of public morality was considered as an indicator of civilization, and based on this, the customs of various regions were evaluated. If Pyeongando had only remained within its original inherent characteristics, regardless of its distance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t would have been seen as a peripheral and border region. However, it underwent various struggles to change its regional customs as various factors-external evaluations, internal aspirations to change, and historical circumstances-intertwined. From the 16th to 18th centuries, not only Pyeongyang- the main city in the western region(關西)- and its surrounding areas, but also areas close to the border-Ganggye, Chosan, and Seongcheon- began to actively appropriate the standards of cultural civilization emphasized by Joseon Dyanasty. Also,

* Visiting schola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they recorded their change -from the cultural periphery to the civilized-in the local gazetteers. On the other hand, there developed a perspective that saw the martial tradition not as a sign of uncivilization, but somewhat positive. It formed a new regional identity as it intertwined with the proud memories of local contribution during Japanese and Manchu invasions. Then in the late 17th century to early 18th century, villages in Pyeongan province-such as Yongcheon, Seoncheon, Uiju, and Jeongju developed the identity of loyal and devoted villages[忠義之鄉]. The villages in the border region, which had revered martial traditions, now moved away from their periphery mentality by discovering the local history of caring for others by utilizing their strengths in martial arts.

Key words : Customs, Local Gazetteers, Pyeongando, Martial Traditions(尙武傳統), Neo-Confucianism, Identity of Loyal and Devoted Village(忠義之鄉)